

2010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

- 경상북도 영양군 -

김승권 · 김연우

K O R E A
I N S T I T U T E
F O R H E A L T H
A N D S O C I A L
A F F A I R S

보 건 복 지 부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| | |
|---|-----|
| 제1장 일반현황 | 3 |
| 제1절 인구특성 | 3 |
| 제2절 복지조직 및 예산 | 6 |
| 제3절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현황 | 8 |
| | |
| 제2장 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| 11 |
| 제1절 최근 5년간 복지정책평가의 전국 순위 | 11 |
| 제2절 2010년 복지정책평가의 전체 및 영역별 점수 | 12 |
| 제3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| 13 |
| 제4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| 14 |
| | |
| 제3장 영양군민의 복지욕구 | 41 |
| 제1절 영양군민의 복지수요 | 41 |
| 제2절 영양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| 70 |
| | |
| 제4장 영양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 | 79 |
| 제1절 기본방향 | 79 |
| 제2절 복지영역별 발전방안 | 86 |
| | |
| 참고문헌 | 95 |
| | |
| 부록 | 99 |
| 1.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| 99 |
| 2. 농어촌 지역 평가그룹(2010년) | 112 |

표 목차

| | |
|---|----|
| 〈표 1-1〉 인구현황 | 3 |
| 〈표 1-2〉 영양군의 인구증감추이 | 4 |
| 〈표 1-3〉 가구현황 | 4 |
| 〈표 1-4〉 연령별 인구 | 5 |
| 〈표 1-5〉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| 5 |
| 〈표 1-6〉 대상별 인구 | 6 |
| 〈표 1-7〉 일반회계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예산 | 8 |
| 〈표 1-8〉 복지시설현황 | 8 |
| 〈표 2-1〉 5년간 전국 순위 | 11 |
| 〈표 2-2〉 전국, 해당그룹, 영양군 영역별 점수 | 12 |
| 〈표 2-3〉 2개년간 영양군 영역별 점수 | 13 |
| 〈표 2-4〉 각 영역의 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14 |
| 〈표 2-5〉 복지총괄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15 |
| 〈표 2-6〉 노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19 |
| 〈표 2-7〉 아동·청소년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21 |
| 〈표 2-8〉 보육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23 |
| 〈표 2-9〉 장애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26 |
| 〈표 2-10〉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29 |
| 〈표 2-11〉 기초생활보장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31 |
| 〈표 2-12〉 자활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33 |
| 〈표 2-13〉 의료급여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 | 36 |
| 〈표 3-1〉 영양군의 전반적인 심각 정도 | 41 |
| 〈표 3-2〉 사회복지시설(기관)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 | 45 |
| 〈표 3-3〉 사회교육프로그램 필요성 | 46 |

| | |
|--|----|
| 〈표 3-4〉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| 54 |
| 〈표 3-5〉 노인복지 관련 사업별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 | 57 |
| 〈표 3-6〉 사회적 차별 등 생활의 어려움 경험 유무 | 59 |
| 〈표 3-7〉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서비스 실태 | 60 |
| 〈표 3-8〉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 | 60 |
| 〈표 3-9〉 여성 관련 기관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 | 64 |
| 〈표 3-10〉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과 의향 | 66 |
| 〈표 3-11〉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 | 69 |
| 〈표 3-12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| 70 |
| 〈표 3-13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| 71 |
| 〈표 3-14〉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| 71 |
| 〈표 3-15〉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| 72 |
| 〈표 3-16〉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| 72 |
| 〈표 3-17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| 73 |
| 〈표 3-18〉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| 74 |
| 〈표 3-19〉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.. | 74 |
| 〈표 3-20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보육·교육시설(기관)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돌보는 사람 | 75 |
| 〈표 3-21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| 76 |
| 〈표 3-22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 | 76 |

그림 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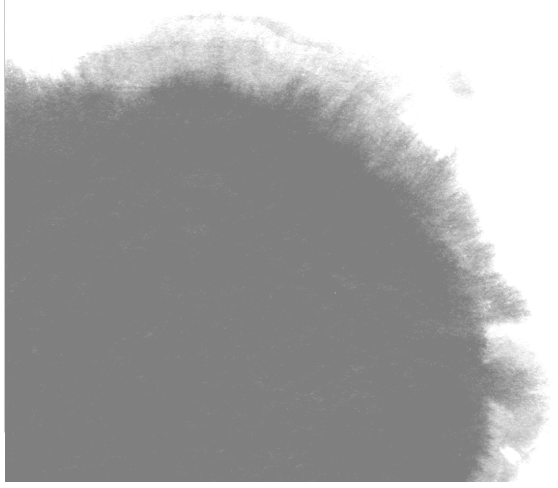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[그림 1-1] | 영양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 | 7 |
| [그림 3-1] | 일자리를 희망하는 가족 수 | 42 |
| [그림 3-2] | 취업희망 가족원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 | 42 |
| [그림 3-3] | 영양군의 생계보호 노력 여부 | 43 |
| [그림 3-4] | 사회복지 상태 수준 | 43 |
| [그림 3-5] | 영양군이 힘써야 할 복지 분야 | 44 |
| [그림 3-6] |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원 형태 | 44 |
| [그림 3-7] | 복지관 이용시 애로 사항 | 45 |
| [그림 3-8] | 자원봉사활동 유무 | 46 |
| [그림 3-9] |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| 46 |
| [그림 3-10] | 자원봉사활동의 어려운 점 | 47 |
| [그림 3-11] |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| 47 |
| [그림 3-12] | 복지서비스 유형 | 48 |
| [그림 3-13] | 가장 필요한 서비스 유형 | 48 |
| [그림 3-14] |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 | 49 |
| [그림 3-15] |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| 49 |
| [그림 3-16] | 직업교육 수혜 여부 | 49 |
| [그림 3-17] |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 | 50 |
| [그림 3-18] | 직업훈련의 종류 | 50 |
| [그림 3-19] |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액 | 51 |
| [그림 3-20] | 나보다 주위에 어려워도 수급자가 못된 사람 유무 | 51 |
| [그림 3-21] |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주변시선의 부담감 | 51 |
| [그림 3-22] | 개인문제 상담의 필요성 | 52 |
| [그림 3-23] | 가족문제 상담의 필요성 | 52 |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[그림 3-24] | 건강문제로 일하기 힘들 | 52 |
| [그림 3-25] | 직업(수입) 유무 | 53 |
| [그림 3-26] | 직업(수입) 희망 여부 | 53 |
| [그림 3-27] | 수입원 | 53 |
| [그림 3-28] | 수발하는 사람의 유무 | 54 |
| [그림 3-29] | 수발인과의 관계 | 55 |
| [그림 3-30] | 수발서비스의 정부우선 순위 | 55 |
| [그림 3-31] | 건강 악화시 거취문제 | 56 |
| [그림 3-32] | 영양군이 주력해야 할 노인복지부문 | 56 |
| [그림 3-33] |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여부 | 57 |
| [그림 3-34] |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| 58 |
| [그림 3-35] | 장애로 인해 집에서 불편한 곳 | 58 |
| [그림 3-36] | 이용하는 교통수단 | 59 |
| [그림 3-37] | 소득 종사 유무 | 61 |
| [그림 3-38] | 소득별 분포 | 61 |
| [그림 3-39] | 일을 하지 않는 이유 | 62 |
| [그림 3-40] | 취업 희망 의도 | 62 |
| [그림 3-41] | 직장구직의 애로사항 | 62 |
| [그림 3-42] | 성범죄 관련 피해 본 사례 | 63 |
| [그림 3-43] | 성범죄 관련 지역 안전도 | 63 |
| [그림 3-44] | 성범죄 관련 도움 요청 방법 | 64 |
| [그림 3-45] | 영양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| 64 |
| [그림 3-46] | 낮 시간 돌봄 | 65 |
| [그림 3-47] | 선호 보육시설 | 65 |
| [그림 3-48] | 자녀의 염려되는 문제 | 66 |
| [그림 3-49] | 자녀 고민상담 대상 | 66 |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[그림 3-50] | 자녀양육과 관련 필요 서비스 | 67 |
| [그림 3-51] | 방과 후 프로그램 보낼 의향 | 67 |
| [그림 3-52] | 방과 후 필요 프로그램 내용 | 68 |
| [그림 3-53] | 자녀의 가장 염려 되는 문제 | 68 |
| [그림 3-54] | 자녀양육과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 | 69 |

01

일반현황



제1장 일반현황

제1절 인구특성

1. 인구 및 가구현황

- 영양군의 2009년 말 인구수는 18,666명(외국인 포함)으로 남성 9,196명, 여성 9,470명임.
- 외국인 비율은 영양군 전체 인구의 0.61%(113명)로,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비율 0.54%보다 다소 높고, 경상북도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비율 0.50%보다 높음.

〈표 1-1〉 인구현황

(단위: 명)

| 구분 | 성별 ¹⁾ | | | 국적 ²⁾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| 계 | 남 | 여 | 계 | 한국인 | 외국인 |
| 전국 | 48,746,693 | 24,481,480 | 24,265,213 | 44,279,490 | 44,041,973 | 237,517 |
| 경상북도 | 2,606,056 | 1,311,550 | 1,294,506 | 2,607,641 | 2,594,719 | 12,922 |
| 영양군 ³⁾ | 18,666 | 9,196 | 9,470 | 18,666 | 18,553 | 113 |

자료: 1) 통계청, 「장래추계인구」, 2009; 2) 통계청, 「인구주택총조사」, 2005; 3) 영양군, 통계연보, 2011.

- 2000~2009년 기간중 영양군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감소속도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.
- 동 기간중 영양군의 인구는 약 18.5%(4,228명) 감소하였으며, 이러한 경향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멈출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.

〈표 1-2〉 영양군의 인구증감추이

(단위: 명, %)

| 구분 | 총 인구수 | 전년도 대비 인구증감수 | 전년도 대비 인구증감률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00 | 22,894 | - | - |
| 2001 | 22,286 | -608 | -2.66 |
| 2002 | 21,496 | -790 | -3.54 |
| 2003 | 20,874 | -622 | -2.89 |
| 2004 | 20,275 | -599 | -2.87 |
| 2005 | 20,082 | -193 | -0.95 |
| 2006 | 19,697 | -385 | -1.92 |
| 2007 | 19,207 | -490 | -2.49 |
| 2008 | 18,882 | -325 | -1.69 |
| 2009 | 18,666 | -216 | -1.14 |

자료: 영양군, 통계연보, 2011.

□ 영양군의 총 가구수는 8,495가구로 평균 가구원수는 2.20명으로 나타났다.

- 영양군의 평균 가구원수는 전국 평균 가구원수(2.88명)와 경상북도 평균 가구원수(2.70명)보다 현저히 적어 농촌지역의 특성인 노인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음을 엿볼 수 있음.

〈표 1-3〉 가구현황

(단위: 세대, 명)

| 구분 | 총 인구수 | 가구수 | 평균 가구원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¹⁾ | 48,746,693 | 16,916,966 | 2.88 |
| 경상북도 ¹⁾ | 2,606,056 | 965,017 | 2.70 |
| 영양군 ²⁾ | 18,666 | 8,495 | 2.20 |

주: 1) 평균 가구원수=총 인구수/가구수. 2) 영양군은 내국인 기준임.

자료: 1) 통계청, 「장래추계인구」, 2009; 2) 영양군, 통계연보, 2011.

2. 인구구조

□ 영양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, 한국 및 경상북도의 평균보다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와 유년인구(0~14세)는 적었고, 노인인구(65세 이상)는 현저히 많았음.

- 영양군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60.6%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72.6%보다 현저히 낮았으며, 경상북도의 68.7%보다도 낮았음.

- 마찬가지로 유년인구는 9.5%로 우리나라의 16.8%, 경상북도의 15.4%보다도 낮았음.
- 이와는 상반되게 노년인구는 29.9%로 우리나라의 10.6%보다 2배 이상 높았고, 경상북도의 15.9%보다 높았음.

〈표 1-4〉 연령별 인구

(단위: 명)

| 구분 | 계 | 0~14세 | 15~64세 | 65세 이상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국 ¹⁾ | 48,746,693 (100.0%) | 8,180,366 (16.8%) | 35,373,617 (72.6%) | 5,192,710 (10.6%) |
| 경상북도 ¹⁾ | 2,606,056 (100.0%) | 400,550 (15.4%) | 1,790,298 (68.7%) | 415,208 (15.9%) |
| 영양군 ²⁾ | 18,553 (100.0%) | 1,766 (9.5%) | 11,248 (60.6%) | 5,539 (29.9%) |

주: 영양군은 내국인 기준임.

자료: 1) 통계청, 「연령별 장래추계인구」, 2009; 2) 영양군, 통계연보, 2011.

□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영양군의 총부양비는 전국 37.81%보다 높은 64.94%로 경상북도 45.57%보다도 높은 수준이며, 노년화지수는 313.65로 전국 (63.48)의 약 4.9배, 경상북도(103.66)의 약 3.0배 높음.

- 유년부양비는 15.70%로 전국(23.13%) 및 경상북도(22.37%)보다 낮았음.
- 그렇지만 노년부양비는 49.24%로 전국(14.68%) 및 경상북도(23.19%)보다 현저히 높았음.

〈표 1-5〉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

(단위: 명)

| 구분 | 부양비 | | | 노년화지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유년부양비 | 노년부양비 | 총부양비 | |
| 전국 ¹⁾ | 23.13 | 14.68 | 37.81 | 63.48 |
| 경상북도 ¹⁾ | 22.37 | 23.19 | 45.57 | 103.66 |
| 영양군 ²⁾ | 15.70 | 49.24 | 64.94 | 313.65 |

주: 유년부양비=유년층(0~14세 인구)/생산가능인구(15~64세 인구)×100

노년부양비=노년층(65세 이상 인구)/생산가능인구(15~64세 인구)×100

노년화지수=노년층(65세 이상 인구)/유년층(0~14세 인구)×100

영양군은 내국인 기준임.

자료: 1) 통계청, 「연령별 장래추계인구」, 2009; 2) 영양군, 통계연보, 2011.

- 영양군의 전체 인구대비 복지대상인구의 비율은 전국 및 경상북도보다 높았음.
 -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0.43%로 전국 3.04%, 경상북도 4.57%보다 다소 높았음.
 -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9.85%로 전국 4.98%, 경상북도 6.33%보다 다소 높았음.
 - 전체 가구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1.19%로 전국 0.78%, 경상북도 0.74%보다 높았음.

〈표 1-6〉 대상별 인구

| 구분 | 전체인구 | 전체가구 | (단위: 명, 가구)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기초생활수급자 ¹⁾ (전체인구대비 비율) | 등록장애인 수 ²⁾ (전체인구대비 비율) | 다문화가족 수 ³⁾ (전체가구대비 비율) |
| 전국 | 48,746,693 | 16,916,966 | 1,482,719 (3.04%) | 2,429,547 (4.98%) | 131,702 (0.78%) |
| 경상북도 | 2,606,056 | 965,017 | 119,035 (4.57%) | 164,885 (6.33%) | 7,103 (0.74%) |
| 영양군 | 18,553 | 8,495 | 1,936 (10.43%) | 1,828 (9.85%) | 101 (1.19%) |

주: 영양군은 내국인 기준임.
 자료: 1) 보건복지부, 「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」, 2010; 2) 보건복지부, 내부자료, 2010; 3) 김승권 외, 「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」, 보건복지가족부·법무부·여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0.

제2절 복지조직 및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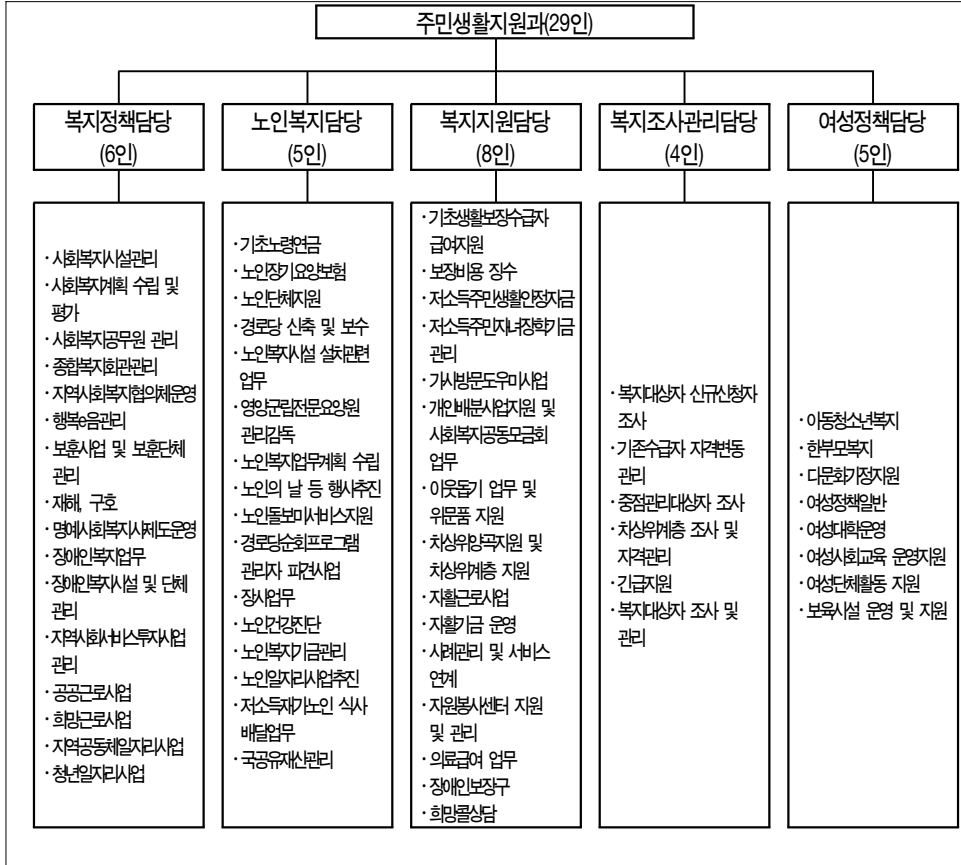
1. 복지조직

- 영양군의 공공복지체계는 주민지원과 내 5개 담당(복지정책, 노인복지, 복지지원, 복지조사관리, 여성정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특징 또는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.
 -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함.
 - 다만, 다음의 문제점을 적극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－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업무를 ‘복지

정책담당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, 복지정책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.

- 가족업무, 아동복지업무, 청소년업무, 지역사회서비스업무, 의료급여업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조직체계에서 엿볼 수 있음.

[그림 1-1] 영양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



자료: 영양군, 내부자료, 2011.

2. 예산

□ 영양군의 2010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2,078억원이며, 11.06%인 229억 2,800만원이 복지예산을 차지하고 있음.

○ 영양군의 전체인구(18,666명)를 감안한다면, 인구 1인당 1,228,330원의 공공 복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결과임.

〈표 1-7〉 일반회계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예산

| (단위: 천원, %)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전체예산 | 사회복지예산 | 사회복지예산 비율 |
| 207,800,000 | 22,928,000 | 11.06 |

자료: 영양군, 내부자료, 2011.

제3절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현황

□ 2011년 현재 영양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25개소로 생활시설 6개소, 이용시설 19개소임

- 생활시설은 장애인,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－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에 직원 2명, 입소정원 9명,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직원 73명, 입소정원 164명
- 이용시설은 노인, 장애인,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－ 노인재가복지시설 2개소에 직원 62명,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13개소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에 직원 4명, 지역아동센터 2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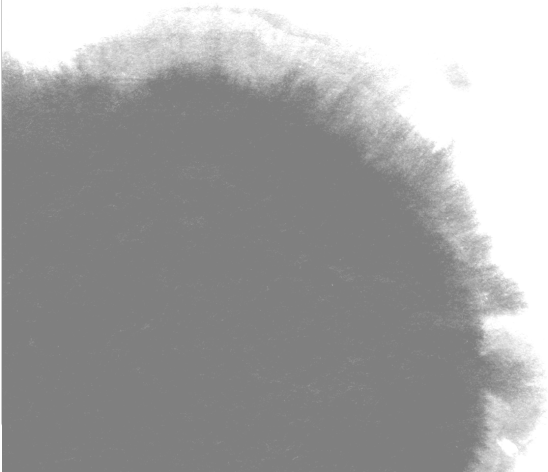
〈표 1-8〉 복지시설현황

| (단위: 개소, 명) | | |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구분 | 시설수 | 정원수 | 직원수 |
| 생활시설 | 6 | 173 | 75 |
| 장애인복지시설 | | | |
| 공동생활가정 | 1 | 9 | 2 |
| 노인복지시설 | | | |
| 요양시설/공동생활가정 | 5 | 164 | 73 |
| 이용시설 | 19 | - | 66 |
| 노인복지시설 | | | |
| 노인재가복지시설 | 2 | - | 62 |
|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| 13 | - | 파악불가 |
|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| | | |
| 장애인심부름센터 | 1 | - | 2 |
| 수화통역센터 | 1 | - | 2 |
| 아동청소년복지시설 | | | |
| 지역아동센터 | 2 | - | 파악불가 |

주: 1) 생활시설: 아동청소년복지시설, 여성복지시설, 가족복지시설,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, 정신보건시설 없음. ; 2) 이용시설: 지역사회복지시설,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, 정신보건시설, 여성복지시설, 가족복지시설 없음.

자료: 영양군, 내부자료, 2011.

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



제2장 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

제1절 최근 5년간 복지정책평가의 전국 순위

-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위에 의하여 영양군의 지난 5년간 복지정책의 종합평가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음.
 -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직접평가를 받은 2006~2008년 기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‘ 시도 합동평가 ’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평가를 받은 2009~2010년 기군에도 좋지 않았음.
 - 3대 지역(대도시, 중소도시, 군), 인구수, 재정자립도 등이 평가결과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(김승권 외, 2007, 2008, 2009, 2010), 영양군 복지정책에 대한 진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.

〈표 2-1〉 5년간 전국 순위

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5년간 평균순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158 | 221 | 229 | 163 | 226 | 199 |

제2절 2010년 복지정책평가의 전체 및 영역별 점수

□ 영양군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7,715점 만점에 4,597.14점으로 100점 환산시 59.59점임.

-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, 80점대인 영역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의료급여, 노인복지는 70점대이었음.
- 가장 낮은 점수대인 40점대는 자활영역, 아동·청소년영역이었고, 50점대는 보육영역, 지역사회서비스영역, 기초생활보장영역 등이었음.

〈표 2-2〉 전국, 해당그룹, 영양군 영역별 점수

(단위: 점)

| 영역(만점) | 전국 | | | 해당그룹 | | | 영양군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| 최고 | 평균 | 최저 | 최고 | 평균 | 최저 | 7715점 기준 | 100점 기준 |
| 복지총괄(1711점) | 1,541.11 | 1,136.75 | 778.99 | 1,400.24 | 1,171.74 | 926.54 | 1,042.29 | 60.92 |
| 노인복지(922점) | 922.00 | 769.88 | 607.30 | 922.00 | 775.90 | 638.80 | 709.60 | 76.96 |
| 아동·청소년(568점) | 516.88 | 372.28 | 227.20 | 516.88 | 371.63 | 255.60 | 255.60 | 45.00 |
| 보육(568점) | 545.28 | 383.40 | 227.20 | 448.72 | 348.51 | 272.64 | 289.68 | 51.00 |
| 장애인(937점) | 883.45 | 605.68 | 374.80 | 808.48 | 609.47 | 501.08 | 608.17 | 64.91 |
| 지역사회서비스(826점) | 722.80 | 550.77 | 382.00 | 544.46 | 456.42 | 420.56 | 433.60 | 52.49 |
| 기초생활보장(885점) | 734.55 | 494.68 | 371.70 | 672.60 | 483.59 | 371.70 | 513.30 | 58.00 |
| 자활(688점) | 646.72 | 428.28 | 275.20 | 605.44 | 430.00 | 275.20 | 275.20 | 40.00 |
| 의료급여(610점) | 573.40 | 436.73 | 280.60 | 500.20 | 423.51 | 353.80 | 469.70 | 77.00 |
| 계(7715점 만점) | 6,063.71 | 5,178.45 | 4,185.40 | 5,586.10 | 5,070.78 | 4,539.52 | 4,597.14 | 59.59 |

주: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, 평가점수 총점은 7,715점임.

□ 최근 2년간의 영역별 평가점수를 비교해 보면, 9개 영역 중 1개 영역은 평가점수가 상승하였고, 7개 영역은 저하하였으며, 나머지 1개 영역은 동일하였음.

- 의료급여영역이 가장 크게 저하하였고, 노인, 기초생활보장 등도 크게 낮아진 영역이었음.

〈표 2-3〉 2개년간 영양군 영역별 점수

| 분야 | 점수 | | 백분율 | |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2009 | 2010 | 2009 | 2010 | 차이 |
| 복지총괄 | 137.76 | 1,042.29 | 56.00 | 60.92 | +4.92 |
| 노인복지 | 366.10 | 709.60 | 90.17 | 76.96 | -13.21 |
| 아동청소년복지 | 176.30 | 255.60 | 49.11 | 45.00 | -4.11 |
| 보육 | 116.05 | 289.68 | 55.00 | 51.00 | -4.00 |
| 장애인 | 383.53 | 608.17 | 70.37 | 64.91 | -5.46 |
| 지역사회서비스 | 217.57 | 433.60 | 57.26 | 52.49 | -4.77 |
| 기초생활보장 | 369.26 | 513.30 | 65.59 | 58.00 | -7.59 |
| 자활 | 48.80 | 275.20 | 40.00 | 40.00 | 0.00 |
| 의료급여 | 131.95 | 469.70 | 91.00 | 77.00 | -14.00 |

제3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

□ 영양군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.

- 복지총괄 영역의 경우, 「민간복지자원 활성화」는 전국 평균(67.75점)보다 높은 71.00점인 반면, 「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」는 전국 평균(68.05점)보다 낮은 58.00점, 「지역사회협업체 활성화」는 전국 평균(59.85점)보다 낮은 40.00점에 머물렀음.
- 노인복지 영역 중 「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정성」은 전국 평균(97.53점)보다 높은 100점이었던 반면, 「장기요양시설 확충도」는 전국 평균(70.13점)보다 현저히 낮은 55.00점을 보였음.
- 아동·청소년 영역의 「아동·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」은 전국 평균(65.54점)보다 현저히 낮은 45.00점을 나타냄.
- 보육 영역인 「보육서비스 확대」는 전국 평균(67.50점)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51.00점을 보였음.
- 장애인복지 영역의 「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」는 전국 평균(63.31점)보다 현저히 낮은 55.00점을 나타낸 반면,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」는 전국 평균(66.79점)보다 높은 81.00점이었음.

-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「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」는 전국 평균(64.59점)보다 현저히 낮은 40.00점을 획득하였고, 대조적으로 「사회서비스 사업 업무 추진의 적절성」은 전국 평균(69.60점)과 유사한 70.00점을 나타냈음.
- 기초생활보장 영역인 「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」은 전국 평균(55.90점)보다 다소 높은 58.00점이었음.
- 자활영역인 「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」는 전국 평균(62.25점)보다 매우 낮은 40.00점에 불과하였음.
- 의료급여 영역인 「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」은 전국 평균(71.59점)보다 다소 높은 77.00점이었음.

〈표 2-4〉 각 영역의 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(단위: 점)

| 영역 | 지표명 | 만점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복지총괄 |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| 100 | 68.05 | 58.00 |
| |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| 100 | 59.85 | 40.00 |
| |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| 100 | 67.75 | 71.00 |
| 노인복지 |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| 100 | 70.13 | 55.00 |
| |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 | 100 | 97.53 | 100.00 |
| 아동·청소년 | 아동·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| 100 | 65.54 | 45.00 |
| 보육 | 보육서비스 확대 | 100 | 67.50 | 51.00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| 100 | 63.31 | 55.00 |
| | 중증장애인 생신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| 100 | 66.79 | 81.00 |
| 지역사회서비스 |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| 100 | 64.59 | 40.00 |
| |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의 적절성 | 100 | 69.60 | 70.00 |
| 기초생활보장 |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| 100 | 55.90 | 58.00 |
| 자활 |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| 100 | 62.25 | 40.00 |
| 의료급여 |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| 100 | 71.59 | 77.00 |

제4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

1. 복지총괄

- 복지총괄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‘인구 10,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’는 전국 평균(42.04점)과 비슷한 42.00점이었음.
- ‘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’은 전국 평균(20.36점)보다 높은 26.00점이며, ‘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’도 전국 평균(26.68점)보다 약간 높은 28.00점이었음.
- 반면 그 외의 세부 평가지표인 ‘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’, ‘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’, ‘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’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또는 다소 낮았음.

〈표 2-5〉 복지총괄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(단위: 점)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만점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| 인구 10,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| 60.00 | 42.04 | 42.00 |
| |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| 40.00 | 26.01 | 16.00 |
| | 계 | 100.00 | 68.05 | 58.00 |
|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|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| 100.00 | 59.85 | 40.00 |
| | 계 | 100.00 | 59.85 | 40.00 |
|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|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| 30.00 | 20.72 | 17.00 |
| |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| 40.00 | 26.68 | 28.00 |
| |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| 30.00 | 20.36 | 26.00 |
| | 계 | 100.00 | 67.75 | 71.00 |

가.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

- 인구 10,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
 - － (민간복지종사자수 / 인구수) × 10,000
 - － 인구 수 : 2009년 말 기준의 전체 시·군·구 인구수를 의미함. (행정안전부 자료 참조)
 - － 민간복지종사자수 = 이용시설 종사자수+ 생활시설 종사자수
 - － 민간복지종사자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 -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목에 따라 설립, 신고된 시설 및 법인(단, 비인가, 임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

한함)(보육시설 제외)

- 민간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복지종사자 현황 기준으로 함. 시스템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(생활 및 이용시설)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

| 이용시설 종사자수(A) | 생활시설 종사자수(B) | 전체인구수 (C) | 인구10,000명당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: $\{(A+B)/C\} \times 10,000$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0 | 28 | 18,553 | 20.482 | 84.236 | 1.401 | 22.711 |

○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율

- $\{(0.4 \times (\text{보조금신청보고 사회복지시설수} / \text{사회복지시설 수})) + (0.3 \times (\text{종사자보고 사회복지시설 수} / \text{사회복지시설 수})) + (0.3 \times (\text{입소자보고 사회복지시설수} / \text{사회복지시설 수}))\} \times 100$
-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함
 - 사회복지시설 수 :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수
 - 여성, 보육, 청소년, 경로당, 노인교실, 노인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 (단,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)
 -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,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 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.
- 보조금신청(법인시설 한), 종사자(전체시설), 입소자(생활시설 한) 온라인보고 후 승인 처리된 사회복지시설 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산출

| 대상 사회복지시설 수 | | | 온라인보고 후 승인처리된 사회복지 시설수 | | |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보조금 신청(A) | 종사자 보고(B) | 입소자 보고(C) | 보조금 신청(D) | 종사자 보고(E) | 입소자 보고(F) | $\{(D/A \times 0.4) + (E/B \times 0.3) + (F/C \times 0.3)\} \times 100$ | | | |
| 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5 | 7 | 2 | 3 | 3 | 1 | 51.857 | 100.000 | 30.596 | 74.875 |

나.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

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정도

- (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×2) + (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시범평가기관 참여여부 ×3) / 지자체수
-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
 -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.
 - 심의 이행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대면회의(서면회의는 해당 안 됨)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였는지를 의미.
- * 반드시, 09.11월말까지 심의를 받은 실적에 한함(이후 실적은 불인정)
- 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시범평가기관 참여여부
 - 복지부 지역복지과-321(09.2.2)호에 따라 시범평가 및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에 한함

| 201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이행여부(A) | 2008년 시범평가관 및 컨설팅 참여여부(B) | 지자체수 (C) |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((A×2)+(B×3))/C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1 | 0.000 | 5 | 0 | 2.082 |

다. 민간복지자원 활성화

-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
 - 활동 자원봉사자 연간 총 봉사시간 / 활동 자원봉사자 수
 - 연간 총 봉사시간 :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에 등록된 활동자원봉사자 수 (연간 총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) 및 활동 봉사시간
 - 사회복지시설(생활 및 이용시설)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포함되지 않음(이중등록)

| VMS등록 활동자원봉사자수(A) | VMS등록 활동자원봉사자 연간 총 봉사시간(B) |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시간 B/A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2 | 28,790 | 2,399.167 | 7,310.366 | 1,752.842 | 3,185.126 |

○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

- $\frac{(((\text{'09년 기부식품 등 총액} - \text{'08년 기부식품 등 총액}) / \text{'08년 기부식품 등 총액}) \times 100}{0.7} + \frac{(((\text{'09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} - \text{'08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}) / \text{'08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}) \times 100}{0.3}$
- 기부식품 등 총액 : 기부식품 지원사업자(푸드뱅크·마켓)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(FMS)에 등록된 식품중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 받은 식품 등의 『영수증 발행금액(장부가액)』
 - FMS :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기부식품 제공 및 관리시스템
 - 전국 광역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지원사업자로부터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(중복실적)
- 기부식품 등 연간 이용자 : 기부식품 지원사업자(푸드뱅크·마켓)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(FMS)에 등록하는 기부식품 이용자 (재가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이용자 포함)

| 기부식품 등 증가율 | | | 기부식품 등 이용자 증가율 | | | 식품기부량및 이용자증가율 $\{(C \times 0.7) + (F \times 0.3)\}$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'09년 기부식품 등 총액(A) | '08년 기부식품 등 총액(B) | $C = \frac{(A-B)}{B} \times 100$ | '09년 이용자(D) | '08년 이용자(E) | $F = \frac{(D-E)}{E} \times 100$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0.000 | 0 | 0 | 0.000 | 0.000 | 2,860.913 | -92.263 | 87.206 |

○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

- $(\text{사회복지무원 활용인원} / \text{사회복지시설수}) \times 100$
- 사회복지시설 수 : 2009년 말 기준 시·군·구에 등록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수(단, 경로당, 보육시설 제외, 푸드뱅크·푸드마켓 제외)
 -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수만 인정
- 사회복지무원수 : 당해연도 말 기준 복무중인 사회복지무원수(병무청 확인)

| 사회복지 시설수(A) | 사회복무요원 활용인원수(B) |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 배치율 B/A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8 | 5 | 62.500 | 196.667 | 0.000 | 52.212 |

2. 노인복지

□ 노인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‘기초노령연금의 부적정 급여관리’는 전국 평균(47.53점)보다 높은 50.00점으로 만점을 차지하였고, ‘변동자료 적기처리’ 역시 전국 평균(50.00점)과 동일한 50.00점 만점을 차지하였음.
- 반면 다른 세부 평가지표인 ‘장기요양시설 충족률’은 전국 평균(70.13점)보다 현저히 낮은 55.00점을 획득하였음.

〈표 2-6〉 노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(단위: 점)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만점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|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| 100.00 | 70.13 | 55.00 |
| | 계 | 100.00 | 70.13 | 55.00 |
|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 | 변동자료 적기처리 | 50.00 | 50.00 | 50.00 |
| | 부적정 급여관리 | 50.00 | 47.53 | 50.00 |
| | 계 | 100.00 | 97.53 | 100.00 |

가. 장기요양시설 확충도

- 노인요양시설 충족률
 - － (노인요양시설 총정원 / 노인요양 시설 이용대상) × 100
 - －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: 노인요양시설, 그룹홈, 소규모요양시설로서 09년 12월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
 - 지정근거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(장기요양기관 지정)
 - 요양시설 총 정원 근거 : 시군구에 설치 신고된 시설의 정원

-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: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 × 0.016
 - 0.016 : 2010년도 수요 (시설입소 대상)를 전국 평균한 값
 - 65세 이상 인구수는 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에 의함
-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
 -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
 -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
 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요양시설 총 정원 (A) | 시설이용대상(B) | 노인요양시설 총족률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59 | 89 | 66.292 | 409.467 | 0.000 | 113.123 |

나.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정성

○ 변동자료 적기처리

- (처리기한 내 승인처리건수/총 수신건수) × 100
- 처리기한내 승인처리건수 : 배우자, 개인정보, 소득재산변동, 확인 대상자 등 변동사항을 처리기한 내 승인한 비율
- 처리기한 : 2009.1.1~5.31 30일 이내, 2009.6.1~이후 매월 25일까지

| 처리기한 내 승인처리건수(A) | 총 수신건수(B) | 변동자료 적기처리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,660 | 1,694 | 97.993 | 100.000 | 84.193 | 97.547 |

○ 부적정 급여관리

- $(\frac{\text{부당수급환수액}}{\text{부당수급발생액}}) \times 100$
- 사망, 소득·재산 기준초과 등으로 발생한 부당 수급 발생액
- 발생한 부당수급액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한 금액

| 부당수급 발생액 (A) | 부당수급 환수액 (B) | 부적정 급여관리(B/A)*100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2,078 | 2,078 | 100.000 | 100.000 | 28.015 | 72.951 |

3. 아동·청소년복지

- 아동·청소년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- ‘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’은 전국 평균(18.29점)보다 낮은 12.00점이었고, ‘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성화 정도’도 전국 평균(30.07점)보다 현저히 낮은 16.00점에 그쳤음.
 - 반면 ‘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저축률’은 전국 평균(17.19점)과 비슷한 수준인 17.00점을 차지하였음.

〈표 2-7〉 아동·청소년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(단위: 점)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아동·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|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| 30.00 | 18.29 | 12.00 |
| |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성화 정도 | 40.00 | 30.07 | 16.00 |
| |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저축률 | 30.00 | 17.19 | 17.00 |
| | 계 | 100.00 | 65.54 | 45.00 |

가. 아동·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

-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

$$= \left(\frac{\text{단속 횟수}}{\text{청소년유해업소 수}} \times 0.3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적발 건수}}{\text{청소년유해업소 수}} \times 0.7 \right) \times 100$$

- 청소년유해업소수 :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(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), 나목(청소년고용금지업소)을 말하며, 유해업소수는 새올시스템에 입력된 유해업소수를 적용

- 단속횟수 :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시행한 단속계획서와 그 결과보고서 기준 ⇒ 기간과 팀(조)을 정하여 단속 명령한 경우
 - 단속횟수는 1일 1팀을 1회로 봄 (2팀 이상으로 결재한 경우 1일 2회 이상으로 봄) (예: 5일간 5개팀이 단속한 경우 25회로 인정)
 - 팀(조) 당 편성인원 : 3인 이상
 - 팀(조)을 정하지 않고 기간만을 정하여 단속 명령한 경우, 단속횟수는 1일 1회로 봄
- 적발건수 : 청소년관련부서에서 단속계획에 의거 실시한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단속결과보고서상 적발한 건수를 말함
 - 중앙부처 합동단속, 관할 경찰관서 또는 시군구 식품위생관련 단속(점검) 팀 등에서 적발한 건수는 제외

| 단속횟수 (A) | 적발 건수 (B) | 청소년 유해업 소수(c) |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[[A/C]×0.3 + [B/C]×0.7] ×100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125 | 0.000 | 40.909 | 0.000 | 3.254 |

-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성화 정도
 - $\{(\text{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} \times 0.7) + (\text{CYS-Net 시행 자치단체} \times 0.3)\} / \text{시군구수}$
 - 청소년지원센터 :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‘청소년지원센터’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
 - CYS-Net 시행 자치단체 : 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’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

|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(A) | CYS-Net 시행여부(B) | 지자체 수(c) | 청소년통합지원체계 (CYS-Net) 활성화정도 {(A×0.7)+(B×0.3)} / C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1 | 0 | 1 | 0 | 0.574 |

-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저축률
 - 저축율 = $\frac{\text{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수 중 저축아동 수}}{\text{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수}} \times 100$

- 저축률 : 09.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월 평균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 지원계좌) 개설 아동중 저축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.
- 대상아동 : 소년소녀가정아동, 가정위탁아동, 아동보호시설아동, 공동생활아동, 시설보호, 장애아동 등으로, 만 0~17세 아동
 - 계좌개설아동 중 만기 도래 및 중도해지 아동은 제외함

| 디딤씨앗 통장개설 아동수(A) | 디딤씨앗 통장개설 아동중 저축아동수(B) | 디딤씨앗통장 (아동발달지원계좌) 저축률 (B/A)X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23 | 21 | 91.304 | 100 | 80 | 92.209 |

4. 보육

- 보육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 - ‘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’는 전국 평균(11.19점)보다 높은 14.00점임.
 - 반면 ‘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’과 ‘취약보육실시율’은 전국 평균(각각 35.23점, 21.07점) 보다 낮은 20.00점, 17.00점이었음.

〈표 2-8〉 보육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(단위: 점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| | 영양군 |
| 보육서비스 확대 |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| 20.00 | 11.19 | 14.00 |
| |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| 50.00 | 35.23 | 20.00 |
| | 취약보육실시율 | 30.00 | 21.07 | 17.00 |
| | 계 | 100.00 | 67.50 | 51.00 |

가. 보육서비스 확대

-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
 - (09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- 08년 국공립보육시설수)
 - 국공립 보육시설수 : 보건복지부 ‘보육통계’에 공표되는 지역별 국공립 보

육시설 현황 자료를 활용함

-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,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(9월 또는 6월)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
-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 점수 부여
 -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: 전체 영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%가 넘는 지역
 -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: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비율이 30%가 넘는 지역
 - 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08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(A) | 09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(B) | 전체영유아수(C) | 보육시설 정원 수(D) |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(E) |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(F) | 자체 수(N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3 | 3 | 568 | 295 | 193 | 120 | 1 |

|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B>A | (B2-B1=0) | | | | | |
| (B-A)/N | ①=(D/C) | ②=(F/E) | 계 ①+② | | | 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.519 | 0.622 | 1.141 | 1.225 | 0.421 | 0.727 |

○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을

-
$$\frac{(\text{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}^1) + 09\text{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}^2)}{2}$$

-
$$\text{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} = \frac{\text{평가인증 보육시설수}}{\text{전체 보육시설수(08년말)}} \times 100$$

-
$$09\text{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} = \frac{09\text{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}}{\text{전체 보육시설수(08년말)}} \times 100$$

-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과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의 평균값

-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: 구시군의 08년 말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
-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: 08년 말 전체 보육시설중 09년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
- 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전체보육시설수 (‘08년말)(A) |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(B) |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(C) |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[[(B/A)+(C/A)] × 100] / 2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5 | 2 | 0 | 20.000 | 72.034 | 11.765 | 40.692 |

○ 취약보육실시율

— $\frac{\text{영아, 장애아, 다문화영유아, 시간연장, 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}}{\text{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}} \times 100$

—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파악함

— 취약보육실시율 :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대비 영아, 장애아, 다문화영유아, 시간 연장, 휴일보육 이용 아동비율을 의미함. 영아이면서 장애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. 영아는 만 3세미만 아동,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.

•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(실적)에 의함

|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 수(A) | 영아 보육 이용 수(B) | 장애아 보육 이용 수(C) |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수(D) | 시간연 장형 보육이 용수(E) | 휴일보육 이용수 (F) | 취약보육실시율 ((B+C+D+E+F)/A) × 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93 | 80 | 1 | 5 | 0 | 0 | 44.560 | 67.917 | 36.132 | 49.954 |

5. 장애인복지

□ 장애인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○ ‘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’은 전국 평균(17.17점)보다 매우 높은 25.00점으로 만점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으며, ‘우선구매비율 준수율’, ‘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’과 ‘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’도 전국 평균(각각 31.53점, 21.03점, 14.23점)보다 높은 35.00점, 26.00점, 20.00점이었음.

○ ‘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’은 전국 평균(15.61점)보다 낮은 10.00점이었고, ‘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’도 전국 평균(30.53점)보다 낮은 20.00점으로 나타남.

〈표 2-9〉 장애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(단위: 점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| | 영양군 |
|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 서비스 확대 |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| 25.00 | 15.61 | 10.00 |
| |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| 50.00 | 30.53 | 20.00 |
| |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| 25.00 | 17.17 | 25.00 |
| | 계 | 100.00 | 63.31 | 55.00 |
|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사업 성과 |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| 50.00 | 31.53 | 35.00 |
| |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| 30.00 | 21.03 | 26.00 |
| |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| 20.00 | 14.23 | 20.00 |
| | 계 | 100.00 | 66.79 | 81.00 |

가.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
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

- (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/등록장애인수)×100
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: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
 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활동시설, 직업훈련 시설
-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 :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
 - 지자체 제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(통계)자료에 의함
- 등록장애인수 :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 - 장애인복지법의 지자체 조례에 의한 시설(ex, 자활자립장 등)은 제외

| 등록 장애인수 (A) |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(B) |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설치율 (B/A)*100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,813 | 0 | 0.000 | 3.949 | 0.000 | 0.502 |

○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

- (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정원수/등록 장애인수)×100
- 거주시설 :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,

-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
- 거주시설의 입소장애인 정원수 : 시설의 입소 정원 총 수
 - 지자체 제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(통계)자료에 의함
- 등록장애인수 :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 - 02-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 개인운영시설(완화된 시설기준 적용)은 제외

| 등록 장애인 수 (A) |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정원 (B) |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(B/A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,813 | 10 | 0.552 | 12.007 | 0.000 | 1.347 |

-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
 - (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수 / 등록 장애인수) × 100
 -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: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(연평균)
 -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.
 - 복지서비스 :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
 - 등록장애인수
 -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: 복지부 자료에 의함

|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(A) | | | 등록장애인 수(B) |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A=①+② | 장애수당① | 장애아동수당②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589 | 572 | 17 | 1,813 | 32.488 | 43.717 | 7.313 | 22.159 |

나.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

- 우선구매비율 준수율
 - (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수 /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품목 수) × 100
 -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수 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

-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
 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 -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1개 품목으로 처리

| 우선구매비율 총족품목수(A) |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수(B) |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7 | 7 | 100.000 | 100.000 | 22.222 | 87.970 |

-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
 - (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/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총액)×100
 -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: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합계
 -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총액 :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
 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우선구매대상 품목중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(A) |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총액 (B) | 우선구매 대상 품목구매비율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32,700 | 38,070 | 85.894 | 99.690 | 1.863 | 64.222 |

-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
 - (우선구매대상 외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/ 우선구매대상품목구매총액)×100
 - 우선구매대상 외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: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
 -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: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
 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 - 상, 하반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함
 - 품목별 우선구매 현황목록은 '09년 12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

| 우선구매대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(A) | 우선구매대외 품목 구매총액(B) |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985 | 1,230 | 80.081 | 100 | 0 | 49.639 |

6. 지역사회서비스

□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‘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’은 전국 평균(69.61점)과 유사한 70.0점이었음.
- 이와는 대조적으로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시행율’과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(지역개발형)’은 전국 평균(각각 32.59점, 31.99점)보다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음.

〈표 2-10〉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(단위: 점)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 지역사회서비스기반 확충도 |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시행율 | 50.00 | 32.59 | 20.00 |
| |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(지역개발형) | 50.00 | 31.99 | 20.00 |
| | 계 | 100.00 | 64.59 | 40.00 |
|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 추진의 적정성 |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| 100.00 | 69.61 | 70.00 |
| | 계 | 100.00 | 69.60 | 70.00 |

가.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
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시행율
 - － (‘09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건수/ 시군구수)×100
 - － 시행건수 : ‘09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(‘09년 2월~‘10년 1월 시행된 사업해당)
 -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와 일치하게 입력

| 투자사업시행 건수(A) | 시군구수 (B) |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(지역맞춤형) 시행률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 | 1 | 100.000 | 1,000.000 | 0.000 | 246.983 |
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(지역개발형)
 - {(제공기관수 /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사업수)+(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수/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사업수)}×100
 -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역개발형)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
 -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중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
 -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와 일치하게 입력

| 전체 사업수 (A) | 제공기 관수 (B) |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(C) | B/A | C/A |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 (B/A+C/A)×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 | 1 | 0 | 1.000 | 0.000 | 100.000 | 1,900.000 | 0.000 | 289.2 |

나. 사회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의 적정성

-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
 - (이용액 / 생성액) × 100
 - 이용액: 바우처 이용액
 - 생성액: 바우처 생성액
 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와 일치하게 입력

| 이용액 (A) | 생성액 (B) |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실적(이용률) (A/B)*100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54,802,723 | 174,277,790 | 88.825 | 94.475 | 76.378 | 89.310 |

7. 기초생활보장

□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‘급여조정 실적’은 전국 평균(10.97점)보다 현저히 높은 17.00점이었고, ‘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수’도 전국 평균(13.47점)보다 높은 17.00점을 보임.
- 이와는 대조적으로 ‘신규 수급자 발굴실적’과 ‘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’은 전국 평균(각각 13.47점, 9.01점)보다 낮은 10.00점 7.00점으로 나타남.
- ‘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’은 전국 평균(8.98점)보다 다소 낮은 7.00점이었음.

〈표 2-11〉 기초생활보장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(단위: 점)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영양군 |
|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|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| 25.00 | 13.47 | 10.00 |
| | 급여조정 실적 | 20.00 | 10.97 | 17.00 |
| |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| 15.00 | 8.98 | 7.00 |
| |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수 | 25.00 | 13.47 | 17.00 |
| |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 | 15.00 | 9.01 | 7.00 |
| | 계 | | 100.00 | 55.90 |

가.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정성

-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
 - $(\text{신규 수급자 수} / \text{총수급자 수}) \times 100$
 - 신규수급자수 : ‘09년 1~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
 - 총수급자 수 : ‘09.12.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

| 신규 수급자수(A) | 총 수급자수(B) |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(A/B)*100 | | | | 상위순위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 |
| 177 | 1,936 | 9.143 | 26.834 | 6.295 | 14.427 | 87.07 |

○ 급여조정 실적

- $(\frac{\text{보장중지건수}}{\text{수급자가구수}} \times 0.5) + (\frac{\text{급여감소건수}}{\text{수급자가구수}} \times 0.25) + (\frac{\text{급여증가건수}}{\text{수급자가구수}} \times 0.25)$

- 보장중지 건수 : 수급자에서 중지된 건

- 급여감소/증가 건수 : 생계, 주거급여가 감소/증가된 건

- 가구원 전부, 일부 전출, 사망, 군입대, 교정시설 수용, 보장시설입소, 행 불(가출), 최저생계비 기준 (현금급여)에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

- 수급자 가구수 : '09.12.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 수

| 보장 중시 건수 (A) | 급여 감소 건수 (B) | 급여 증가 건수 (C) | 수급 자가 구수 (D) | (A/D)*0.5 | (B/D)*0.25 | (C/D)*0.25 | 급여조정 실적 | | | | 상위 순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 |
| 281 | 1,481 | 498 | 1,228 | 0.114 | 0.302 | 0.101 | 0.517 | 0.738 | 0.057 | 0.410 | 6.90 |

○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

- $\frac{\text{'09년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}}{\text{'08년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}} \times 100$

- '08년 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 대비 '09년 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

| '09년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(A) | '08년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(B) |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(A/B)×100 | | | | 상위순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 |
| 45 | 29 | 155.172 | 1,948.3 | 72.222 | 366.954 | 95.69 |

○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 수

- $(\text{수급 가구 수} / \text{정책 대상 가구 수}) \times 100$

- 정책대상자 : '09년도 시군구별 한시생계보호 정책대상목표인원

- 수급 가구 : '09년 한시생계보호 수급 가구

-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수급 가구 수(A) | 정책대상 가구수(B) |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가구수 (A/B)×100 | | | | 상위순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 |
| 411 | 394 | 104.315 | 179.89 | 38.524 | 94.252 | 29.74 |

○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

- (시군구 신규대출건수-전국 평균 대출건수)/전국 평균 대출건수 ×100
- 전국 평균 대출건수: '09.12.31 기준, 서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대출실행 건수
- 시군구 신규대출건수: '09.12.31 기준의 대출 실적
- 행복e음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및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신규대출건수(A) | 전국 평균 대출건수(B) | 시군구 신규 대출실적 $\{(A-B)/B\} \times 100$ | | | | 상위순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 |
| 3 | 38 | -92.105 | 573.68 | -100.000 | -0.159 | 83.19 |

8. 자활

□ 자활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'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) 등 사업운영 규모'는 전국 평균(12.03점)보다 낮은 8.00점이었고, '자활기금 활용실적'도 전국 평균(9.67점)보다 다소 낮은 8.00점으로 나타남.
- '수급자의 취업·창업률'과 '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'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(각각 20.17점, 20.38점)보다 현저히 낮은 12.00점, 12.00점을 획득하는데 그쳤음.

〈표 2-12〉 자활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(단위: 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| | 영양군 |
| 자활사업 자원 및 활성화 정도 |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) 등 사업운영 규모 | 20.00 | 12.03 | 8.00 |
| | 자활기금 활용실적 | 20.00 | 9.67 | 8.00 |
| | 수급자의 취업·창업률 | 30.00 | 20.17 | 12.00 |
| |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| 30.00 | 20.38 | 12.00 |
| | 계 | 100.00 | 62.25 | 40.00 |

가.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

-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) 등 사업운영 지원 규모
 - (사업장 무상임대+생산품 우선구매 실적+사업우선위탁 실적+자체예산 교육지원)/지자체수
 - 사업장 무상임대 : 임대비용 공시지가 및 과표(건물)
 -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: 구매총금액 작성
 - 사업우선위탁 실적 : 구매총금액 작성
 - 자체예산 교육지원 등 :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참여자 역량강화 및 사업 활성화 등의 직, 간접 지원액
 - 간접지원액은 공식절차 입증가능하며 금액환산이 가능한 경우 인정

| 무상임대 (A) | 우선구매 및 우선 위탁(B) | 자체예산 활용지원(C) | 지자체 수(D) |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등)사업 운영 지원 액수 (총지원액) (A+B+C)/D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0 | 1 | 0.000 | 3,926,830.000 | 0.000 | 294,870.319 |

- 자활기금 활용실적

$$- \frac{\text{자활기금 집행액}}{\text{자활기금 보유액}} \times 100$$

- 자활기금 보유액 : 전년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(자활계정) 총액
- 자활기금 집행액 : 당해연도 자활기금 용도로 집행한 총액

| 자활기금보유액(A) | 집행액(B) | 자활기금 활용실적 (B/A) × 100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5,004 | 0 | 0.000 | 1,824.342 | 0.000 | 13.215 |

- 수급자의 취업·창업률

- (자활사업참여수급자중 취업인원+창업인원)/자활사업참여 수급자수×100
- 취업 및 창업한 인원 : 업그레йд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(누계)
- 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: 시장진입형+사회적일자리형+인턴형+개인창업+취업

알선 +노동부사업

- 자활공동체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이므로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취업 창업 한 실적은 제외하며, 다른 업그레이드사업 참여자가 자활공동체를 창업한 경우는 창업실적으로 포함
- 복지부 자료 활용

|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중 취업인원(A) |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(B) | 자활사업 참여수급자(C) | 수급자의 취업 및 창업률 ((A+B)/C)×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2 | 0.000 | 80.000 | 0.000 | 9.076 |

○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

- $\frac{\text{탈수급자 수}^1}{\text{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 참여(누계) 수급자수}^2} \times 100$
- 탈수급자 수 : 수급자 벗어난 인원(자활특례 포함) +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
-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(누계) 수급자수
 - 시장진입형+사회적일자리형+인턴형+자활공동체+개인창업+취업알선+노동부사업
-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

| 계(A) (①+②+③) |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자수(①) | 특례상향 이동자(②) | 기타소득기 준초과자(③) | 자활사업참 여수급자(B) |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(A/B)×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0 | 0 | 0 | 0 | 2 | 0.000 | 60.000 | 0.000 | 9.215 |

9. 의료급여

- 의료급여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영양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.
 - ‘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’은 전국 평균(19.01점)보다 높은 25.00점이었음.

- ‘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·내원일수 증감률’, ‘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’과 ‘의료급여관리사 채용율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’은 전국 평균(각각 17.14점, 21.30점, 14.14점)과 유사한 수준인 17.00점, 21.00점, 14.00점으로 나타남.

〈표 2-13〉 의료급여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영양군 점수

| 평가지표 | 세부 평가지표 | 만점 | 전국 평균 | (단위: 점)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| 영양군 | 영양군 |
| 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|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·내원일수 증감률 | 25.00 | 17.14 | 17.00 | |
| |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| 30.00 | 21.30 | 21.00 | |
| | 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| 25.00 | 19.01 | 25.00 | |
| |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율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| 20.00 | 14.14 | 14.00 | |
| | 계 | 100.00 | 71.59 | 77.00 | |

가.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

-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·내원일수 증감률
 - 입·내원일수 1년 증감률 + 입·내원일수 3년 평균 증감률
 -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
 -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·내원일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·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.
 -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

| 2008년도 적용인구인 당입·내원 일수(A) | 2009년도 적용인구인 당입·내원 일수(B) | 2007년도 적용인구인 당입·내원 일수(C) | (B-A)/A *100 | (B-C)/C/3 *100 | 수급권자1인당 평균의료급여 입·내원일수 증감률 [[((B-A)/A) × 100] + [(B-C)/C]/3] × 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47 | 54 | 46 | 14.894 | 5.797 | 20.691 | 99.839 | -2.336 | 16.801 |

-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
 -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.
 -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진

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.

－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

|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(A) | 2009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(B) |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(C) | (B-A)/A *100 | (B-C)/C/3 *100 | 수급권자1인당 평균진료비 증감률 [[{(B-A)/A×100}] +[{(B-C)/C}/3] × 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2,872 | 3,285 | 2,517 | 14.380 | 10.171 | 24.551 | 492.170 | 2.075 | 28.975 |

○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

- － $\{('09\text{년 } 1\text{인당 평균급여일수} - '08\text{년 } 1\text{인당 평균급여일수}) / '08\text{년 } 1\text{인당 평균급여일수}\} \times 100$
- －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
- －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대한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.
- －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(13개 지역)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자만 해당됨
- －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

|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(A) | 2009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(B) |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(B-A)/A×100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976 | 855 | -12.398 | 278.358 | -58.828 | 6.447 |

○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

- －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+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
- －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: (채용인원/배치기준인원)×100
 -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

<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>

- 수급권자 6천명미만 : 1명
- 수급권자 6천명 ~ 15천명 미만 : 2명
- 수급권자 15천명 ~25천명미만 : 3명
- 수급권자 25천명이상 : 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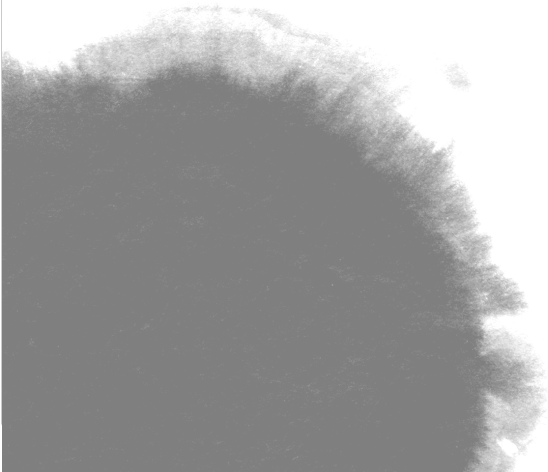
<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>

- 수급권자 2천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배치
 - ※ 보건복지부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-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: (연간 종결인원 실적/연간 종결인원 기준)×100
 -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대상자수를 파악함
 - 일반사례관리지역 1인당 연간종결인원 240명
 - 텔레케어사업지역 1인당 연간종결인원 800명
 - (기존의료급여관리사 1명은 일반사례관리지역 대상자수 적용)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
- ※ 보건복지부 현황자료(실적)에 의함

| 의료급여 관리사채용률(A) | | |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(B) | | |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 관리대상자 비율 A+B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채용 인원 (a) | 배치기 준인원 (b) | (a/b) ×100 | 사례관리대상자수 연간종결인원 실적(c) | 사례관리 대상자 연간종결인원 기준(d) | (c/d) ×100 | 영양군 | 전국 최고 | 전국 최저 | 전국 평균 |
| 1 | 1 | 100.000 | 311 | 240 | 129.583 | 229.583 | 654.792 | 63.611 | 211.040 |

03

영양권민의 복지욕구



제3장 영양군민의 복지욕구

제1절 영양군민의 복지수요)

1. 일반가구

- 주요 사회문제별 심각정도를 살펴본 결과, 복지시설 부족, 의료시설 부족, 경제문제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남.

〈표 3-1〉 영양군의 전반적인 심각 정도

단위 :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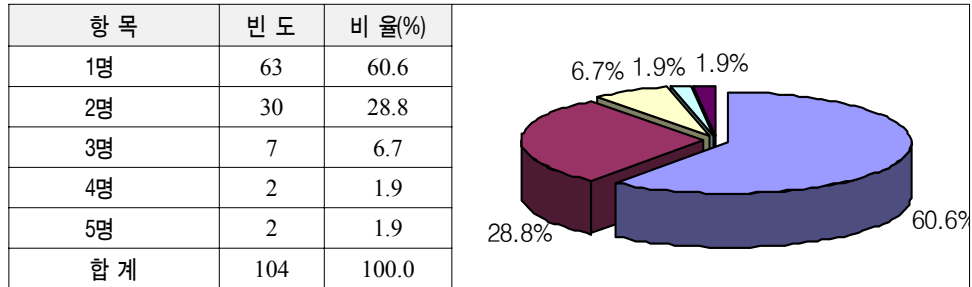
| 문 항 | 전혀 심각하지 않음 | 별로 심각하지 않음 | 보통 | 대체로 심각 | 매우 심각 | 잘 모름 | 빈 도(명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복지시설 부족 | 1.9 | 6.8 | 33.5 | 35.7 | 11.8 | 10.3 | 263 |
| 의료시설 부족 | - | - | 15.6 | 36.1 | 47.1 | 1.1 | 263 |
| 실업, 저소득 등 경제문제 | - | 1.1 | 32.7 | 38.4 | 18.3 | 9.5 | 236 |
| 쓰레기,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 | 6.8 | 27.4 | 50.6 | 8.7 | 3.0 | 3.4 | 263 |
| 미비한 교육환경 문제 | 0.8 | 2.7 | 26.8 | 38.3 | 27.2 | 4.2 | 261 |
| 범죄, 학교폭력 등 치안 문제 | 4.6 | 22.9 | 51.5 | 12.2 | 4.2 | 4.6 | 262 |
| 주택, 주거환경 열악, 재개발 등 | 1.1 | 2.7 | 37.5 | 38.7 | 15.07 | 4.2 | 264 |
| 빈부격차문제 | 1.1 | 2.3 | 53.6 | 25.7 | 10.3 | 6.9 | 261 |

자료: 제2기 영양군 지역복지계획수립 자료(2010) 참조

1) 제2기 영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의 '지역수요의 현황 분석'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함.

- 가족원 중 일자리(취업)를 원하는 가족의 수는 1명이 60.6%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8.8%, 3명 6.7% 등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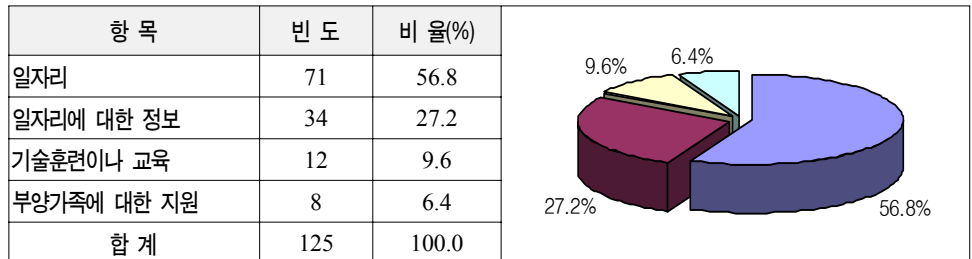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] 일자리를 희망하는 가족 수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구직 가족원이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이 56.8%로 가장 높았으며,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27.2%, 기술 및 교육 능력 9.6% 등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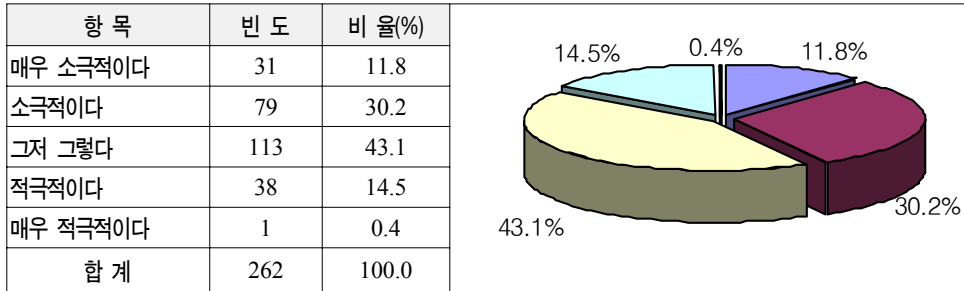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] 취업희망 가족원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영양군의 노력정도를 묻은 결과, 그저 그렇다가 43.1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소극적이다 30.2%, 적극적이다 14.5% 등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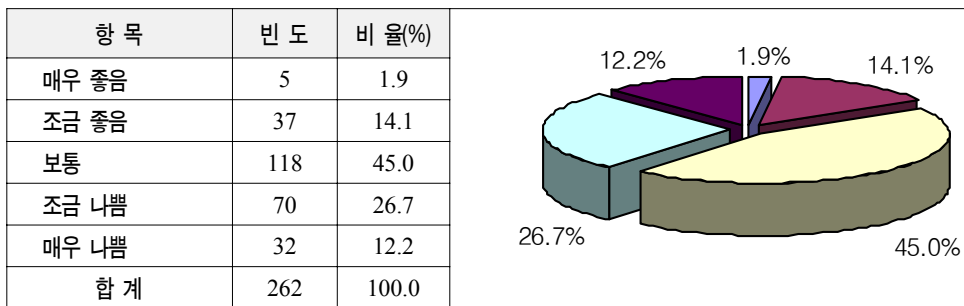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] 영양군의 생계보호 노력 여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영양군 사회복지 상태의 수준에 대하여, 응답자의 45.0%가 보통, 26.7%가 조금 나쁨, 14.1%가 조금 좋음으로 평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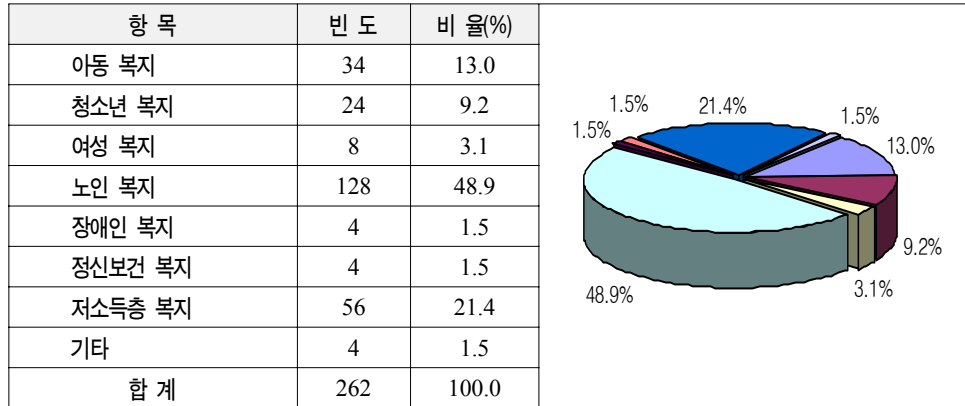
[그림 3-4] 사회복지 상태 수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영양군이 앞으로 가장 힘써야 할 복지 분야에 대하여, 노인복지가 48.9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저소득층, 이동복지 등의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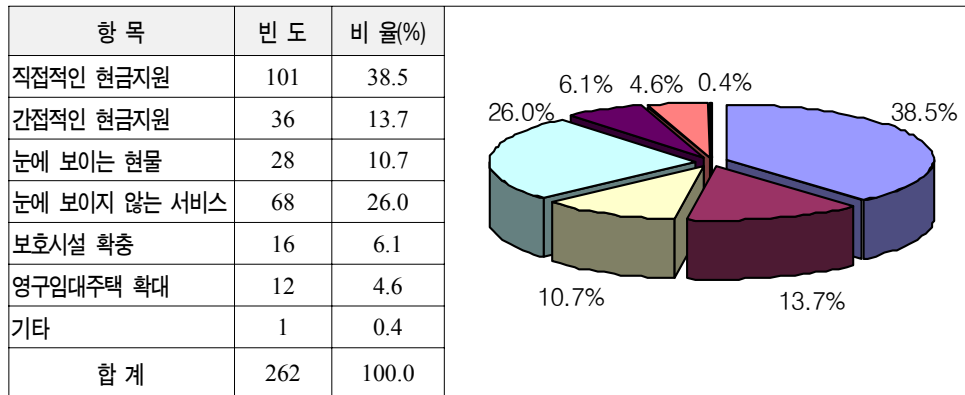
[그림 3-5] 영양군이 힘써야 할 복지 분야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38.5%가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였고, 26.0%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, 13.7%는 간접적인 현금지원을 선호함.

[그림 3-6]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원 형태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영양군 사회복지시설(기관)에 대하여 인지도, 이용경험과 의향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남.

〈표 3-2〉 사회복지시설(기관)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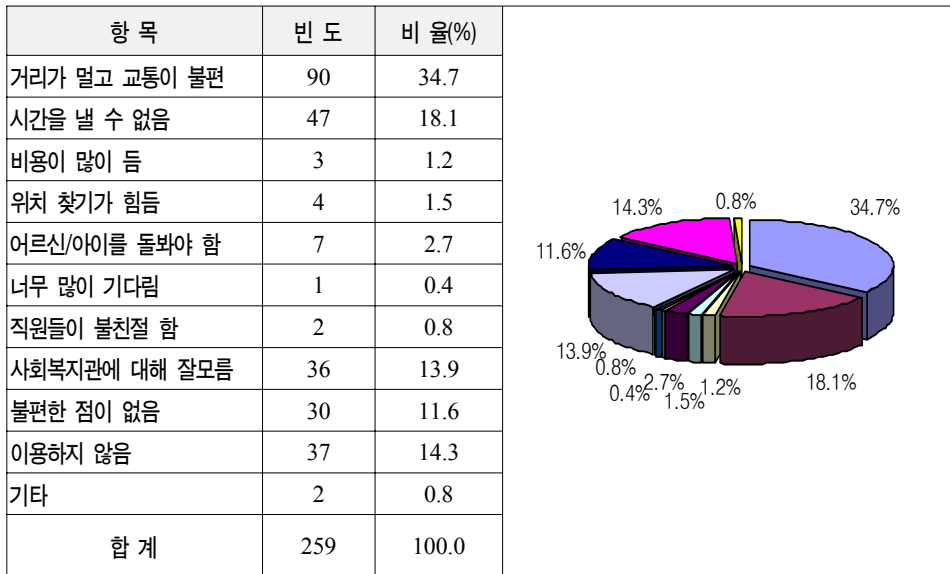
단위: (%)

| 항 목 | 인지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
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| 잘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비해당 |
| 종합복지회관 | 34.0 | 39.3 | 32.4 | 29.9 | 70.1 | 83.9 | 10.9 | 5.2 |
| 문화체육센터 | 34.0 | 43.5 | 22.5 | 42.9 | 57.1 | 85.1 | 11.7 | 3.2 |
| 영양공공도서관 | 39.5 | 36.8 | 23.8 | 37.3 | 62.7 | 81.4 | 14.2 | 4.5 |
| 문화의집 | 25.4 | 36.5 | 38.1 | 24.1 | 75.9 | 73.7 | 20.2 | 6.1 |
| 보건소 | 77.0 | 22.2 | 0.8 | 87.9 | 12.1 | 95.6 | 3.2 | 1.2 |
| 자원봉사센터 | 47.3 | 30.9 | 21.8 | 47.7 | 52.3 | 86.1 | 11.2 | 2.8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복지관 이용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(34.7%)이었으며, 다음으로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점(18.1%)임.

[그림 3-7] 복지관 이용시 애로 사항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영양군민에게 필요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.

〈표 3-3〉 사회교육프로그램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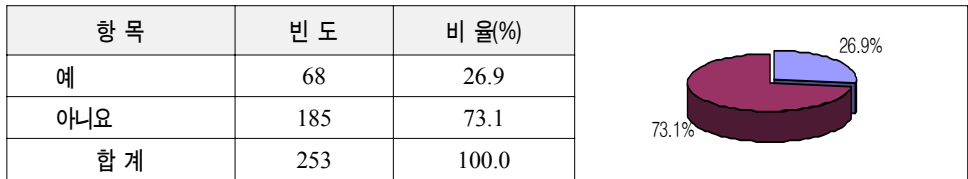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문항 | 매우 필요 | 약간 필요 | 별로 필요없음 | 전혀 필요없음 | 비해당 | 빈도(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
|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/성역할 교육 | 48.1 | 26.0 | 6.1 | 2.7 | 17.2 | 262 |
| 부모교육 및 배우자 교육 | 42.9 | 33.7 | 8.0 | 3.8 | 11.5 | 261 |
| 건강한 가구경제 유지와 소비에 대한 교육 | 36.8 | 40.6 | 11.1 | 5.0 | 6.5 | 261 |
| 부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| 36.4 | 36.0 | 12.6 | 6.1 | 8.8 | 261 |
| 부모, 자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| 44.4 | 33.3 | 9.6 | 4.6 | 8.0 | 261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응답자의 73.1%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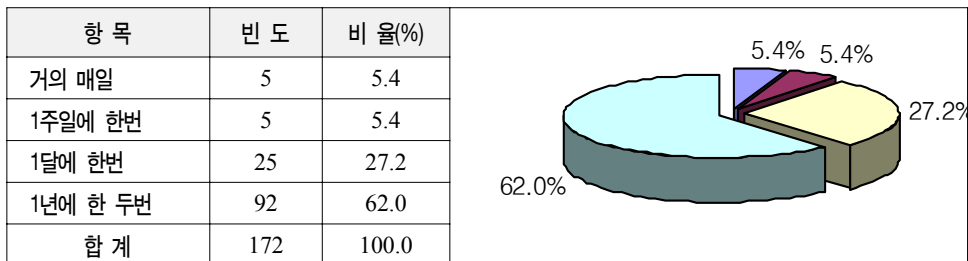
[그림 3-8] 자원봉사활동 유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중 62.0%가 1년에 한 두 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.2%는 1개월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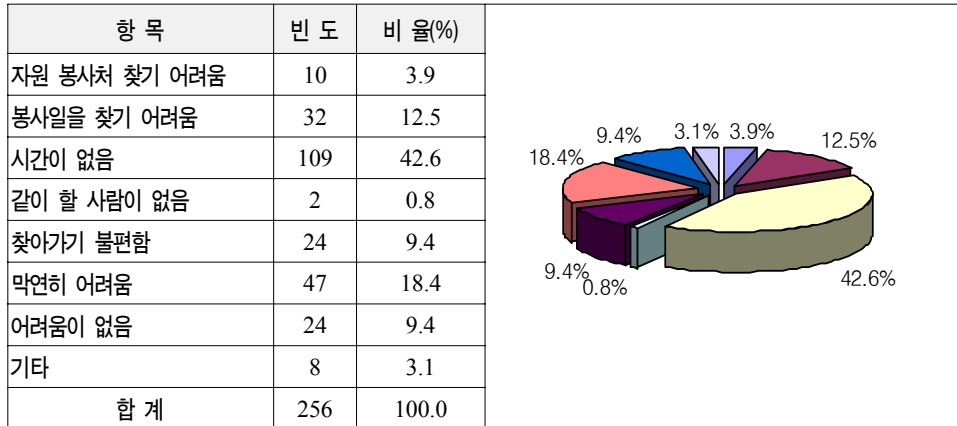
[그림 3-9]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, 시간 없음이 42.6%로 가장 높았고, 적절한 봉사 일을 찾기 어렵다가 12.5%, 막연히 어렵다가 18.4% 이었음.

[그림 3-10] 자원봉사활동의 어려운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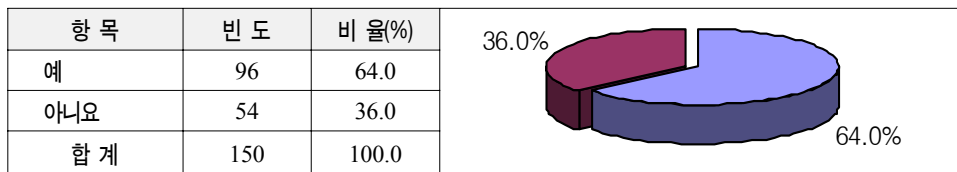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2. 저소득층

- 저소득층 응답자 중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은 적 있는 사람은 64.0%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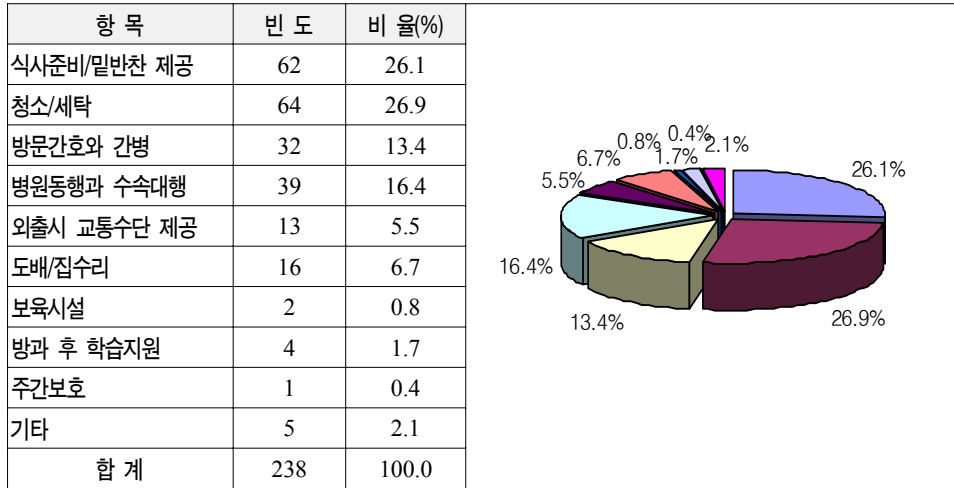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1]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지원 받은 서비스의 유형은 청소/세탁이 26.9%로 가장 많았으며, 식사준비/밑반찬 제공 26.1%, 병원동행과 수속대행이 16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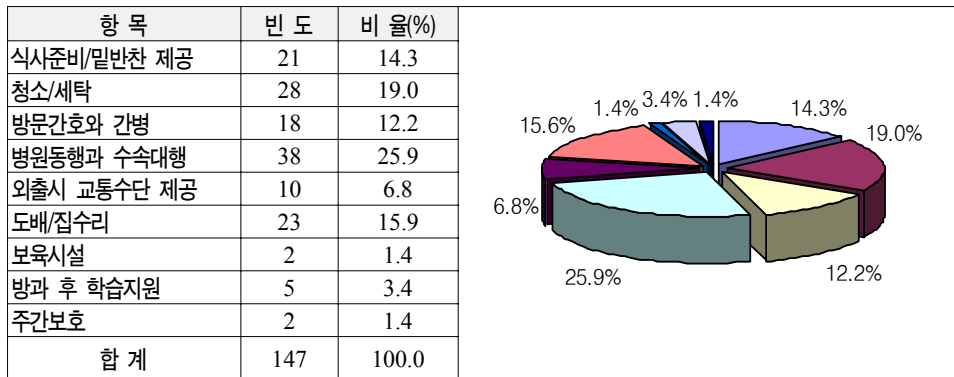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2] 복지서비스 유형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유형은 병원동행과 수속대행이 25.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청소/세탁, 도배/집수리 등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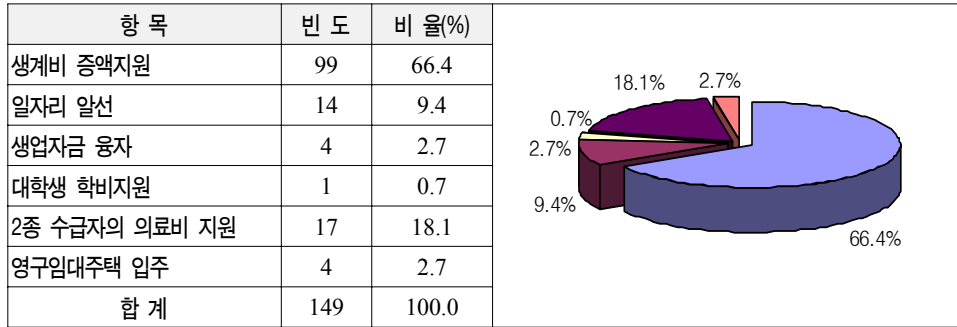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3] 가장 필요한 서비스 유형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생계비 증액지원이 66.4%로 가장 높았으며, 2중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, 일자리 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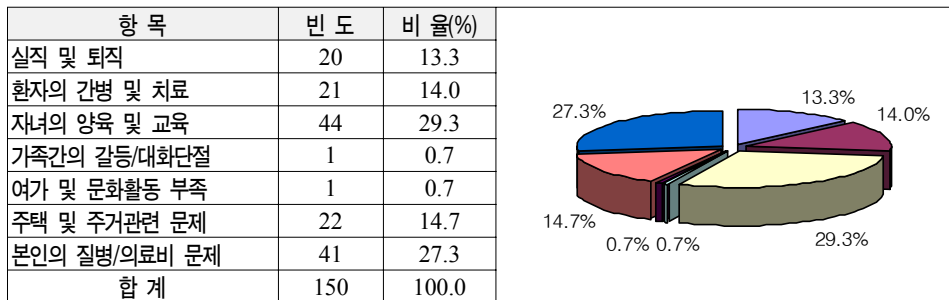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4]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 29.3%로 가장 높았고, 본인의 질병 및 의료비 문제 27.3%, 주택 및 주거 관련 문제 14.7%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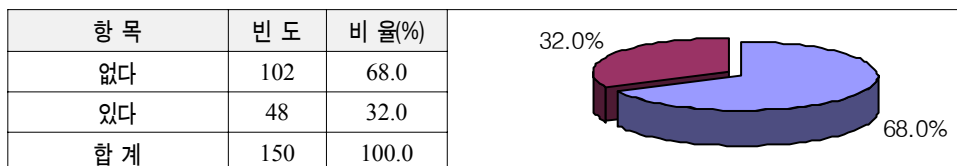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5]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응답자의 68.0%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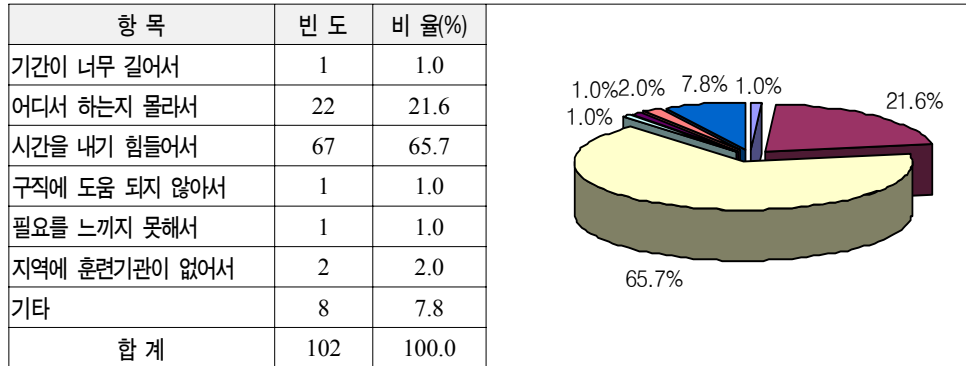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6] 직업교육 수혜 여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로 생계문제로 시간내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5.7%로 가장 많았고, 직업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가 21.6%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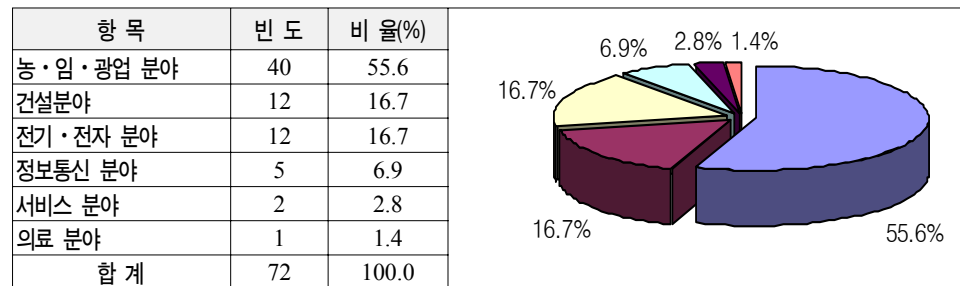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7]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직업훈련 경험자 중 55.6%가 농·임·광업 분야와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건설분야, 전기·전자분야도 각각 16.7%를 차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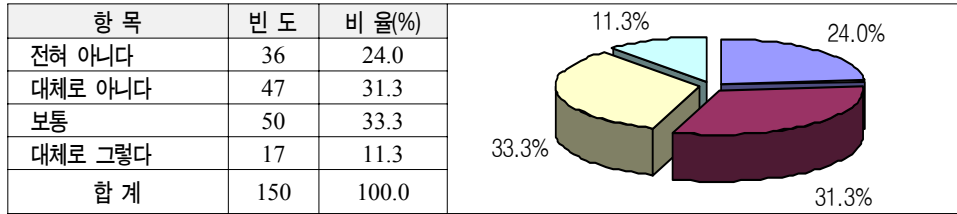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8] 직업훈련의 종류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가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질문한 결과, 보통이 33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다음으로 대체로 아니다 31.3%, 전혀 아니다 24.0%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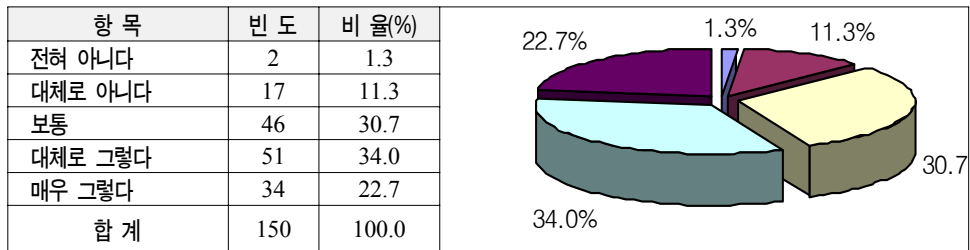
[그림 3-19]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액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주변에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문항에, 대체로 그렇다가 34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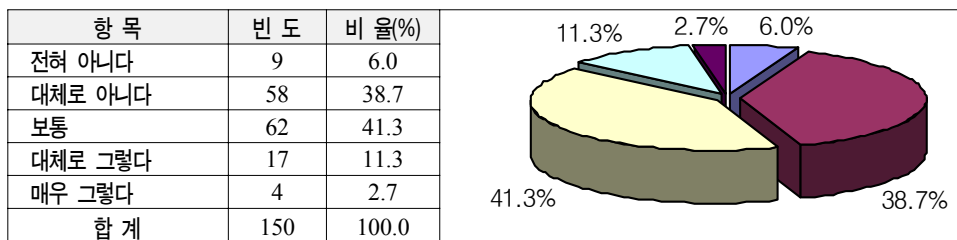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0] 나보다 주위에 어려워도 수급자가 못된 사람 유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주변시선의 부담감에 대하여, 보통이 41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다음으로 대체로 아니다, 대체로 그렇다 등의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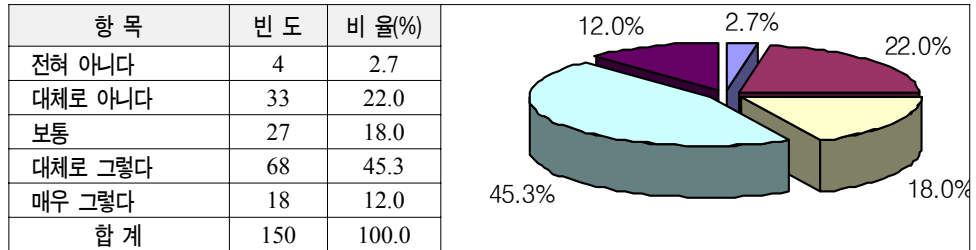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1]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주변시선의 부담감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개인문제로 상담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, 57.3%가 필요하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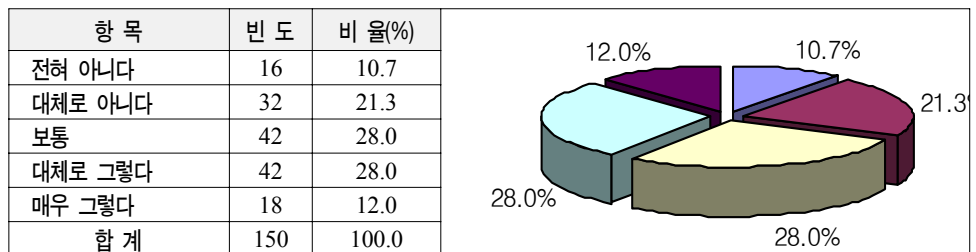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2] 개인문제 상담의 필요성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가족문제로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 묻은 결과, 40.0%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2.0%로 다소 적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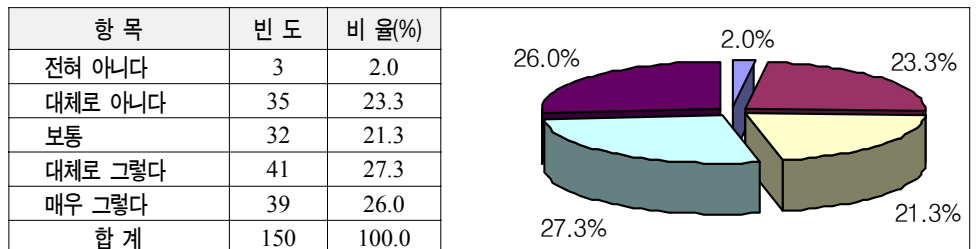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3] 가족문제 상담의 필요성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응답자의 53.3%가 건강문제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3-24] 건강문제로 일하기 힘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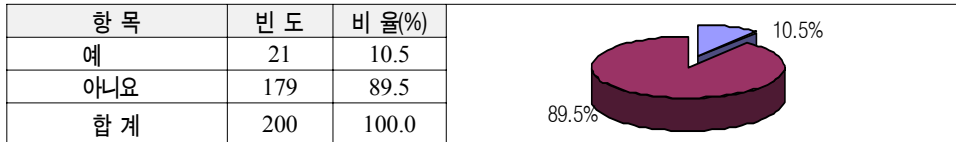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3. 노인

○ 노인 응답자 중 10.5%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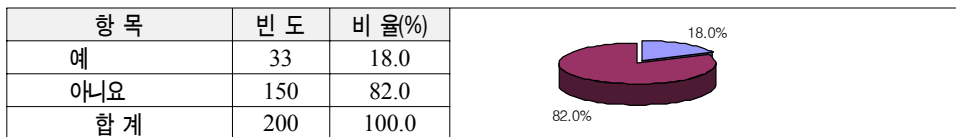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5] 직업(수입) 유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비취업자의 구직희망률은 18.0%로 낮은 수준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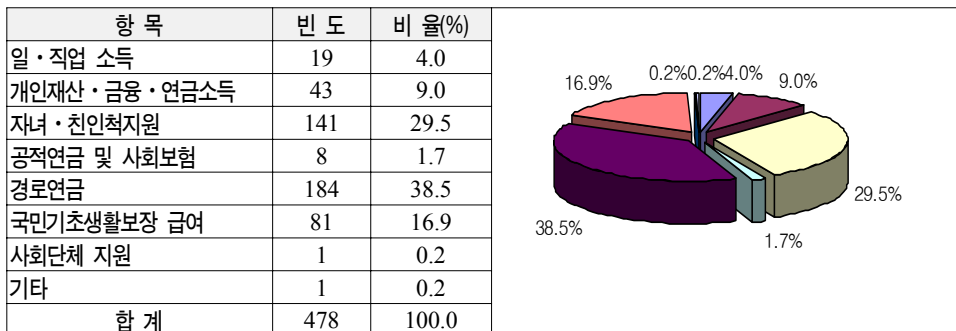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6] 직업(수입) 희망 여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노인의 주 수입원은 경로연금, 자녀·친인척 지원,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파악됨.

[그림 3-27] 수입원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노인 응답자의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은 다음과 같음.

〈표 3-4〉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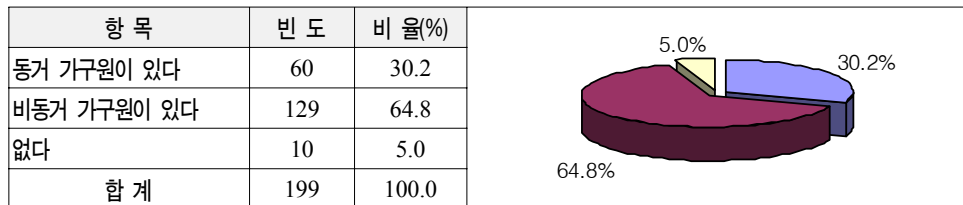
단위 : %

| 구 분 | 항 목 |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| 부분적으로 가능 | 전혀 할 수 없음 | 빈 도(명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 | 옷 벗고 입기 | 97.5 | 2.5 | 0.0 | 199 |
| | 세수하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양치질하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목욕하기 | 43.2 | 55.8 | 0.0 | 199 |
| | 식사하기 | 99.0 | 1.0 | 0.0 | 199 |
| | 체위 변경하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일어나 앉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옮겨 타기(앉기)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방 밖으로 나오기 | 99.0 | 1.0 | 0.0 | 199 |
| | 화장실 사용하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대변 조절하기 | 100.0 | 0.0 | 0.0 | 199 |
| | 소변 조절하기 | 99.0 | 1.0 | 0.0 | 199 |
|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| 몸단장하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| | 집안일(청소, 설거지) | 87.4 | 12.6 | 0.0 | 199 |
| | 식사 준비하기 | 95.5 | 4.5 | 0.0 | 199 |
| | 빨래하기 | 19.6 | 79.9 | 0.5 | 199 |
| | 근거리 외출하기 | 97.5 | 2.5 | 0.0 | 199 |
| | 교통수단 이용하기 | 79.4 | 20.6 | 0.0 | 199 |
| | 상점, 가게 이용하기 | 97.5 | 2.5 | 0.0 | 199 |
| | 금전 관리하기 | 96.5 | 3.5 | 0.0 | 199 |
| | 전화 사용하기 | 79.9 | 19.6 | 0.5 | 199 |
| | 약 챙겨 먹기 | 99.5 | 0.5 | 0.0 | 199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현재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은 64.8%가 비동거 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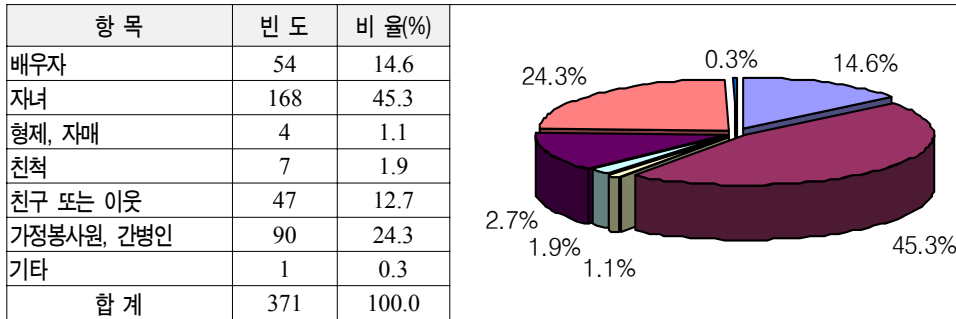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8] 수발하는 사람의 유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수발인은 주로 자녀로 나타났으며 24.3%는 가정봉사원, 간병인이라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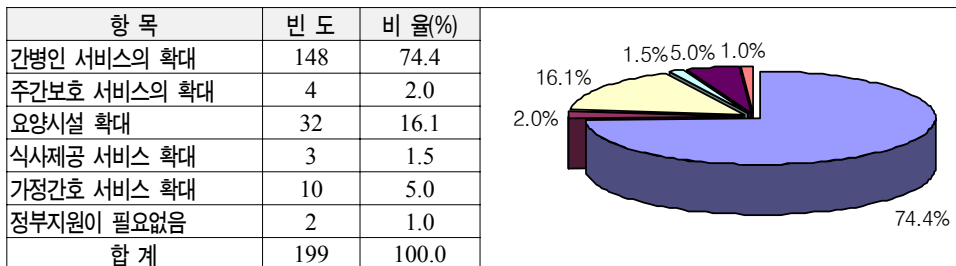
[그림 3-29] 수발인과의 관계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수발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74.4%가 간병인 서비스 확대라고 응답함.

[그림 3-30] 수발서비스의 정부우선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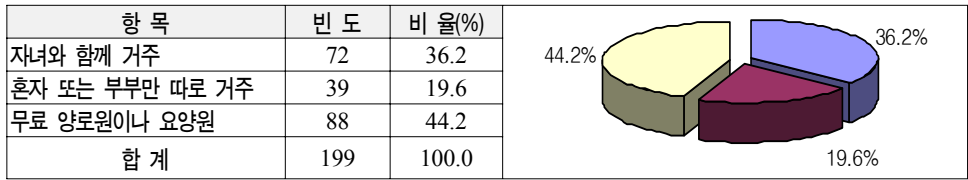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향후 건강 악화 시 거취문제를 조사한 결과, 노인의 44.2%는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응답하였고 36.2%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것으로 응답함.

○ 반면, 유료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복지주택센터의 응답은 없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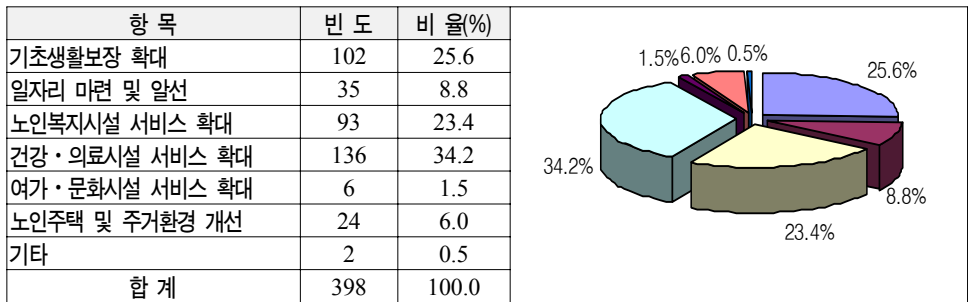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1] 건강 약화시 거취문제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영양군이 가장 주력해야 부분에 대해 34.2%가 건강·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, 노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 순이었음.

[그림 3-32] 영양군이 주력해야 할 노인복지부문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노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별로 인지도여부, 이용경험,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〈표 3-5〉 노인복지 관련 사업별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

(단위: %,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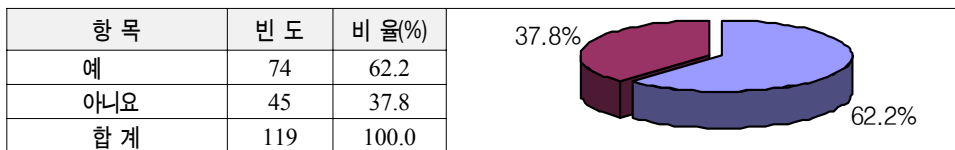
| 문 항 | | 인 지 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 빈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| | 잘 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해당 안됨 | |
| 노인 여가 서비스 | 노인대학·학교·교실 | 0.5 | 13.0 | 86.4 | 1.6 | 98.4 | 12.8 | 63.3 | 24.0 | 198 |
| | 노인복지관 | 3.5 | 41.9 | 54.5 | 19.3 | 80.7 | 39.1 | 43.7 | 17.3 | 198 |
| | 경로당(노인정) | 98.5 | 1.5 | 0.0 | 99.5 | 0.5 | 99.5 | 0.0 | 0.5 | 198 |
|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시설 | 경로연금 | 88.3 | 10.2 | 1.5 | 93.4 | 6.6 | 96.0 | 1.0 | 3.0 | 197 |
| | 노인공동작업장 | 0.0 | 0.5 | 99.5 | 0.0 | 100.0 | 8.6 | 24.2 | 67.2 | 198 |
| | 노인 취업 알선센터 | 0.0 | 0.0 | 100.0 | 0.0 | 100.0 | 1.5 | 29.3 | 69.2 | 198 |
| | 노인인력 지원기관 | 0.0 | 0.0 | 100.0 | 0.0 | 100.0 | 0.5 | 28.3 | 71.2 | 198 |
| 노인 요양시설 및 서비스 | 노인전문병원 | 0.0 | 50.5 | 49.5 | 13.3 | 86.7 | 63.6 | 16.7 | 19.7 | 198 |
| | 노인요양시설 | 0.0 | 68.2 | 31.8 | 1.0 | 99.0 | 40.9 | 32.3 | 26.8 | 198 |
| | 양로시설 | 0.0 | 85.4 | 14.6 | 1.0 | 99.0 | 45.5 | 28.3 | 26.3 | 198 |
| | 단기보호시설 | 0.0 | 0.5 | 99.5 | 0.0 | 100.0 | 1.5 | 8.6 | 89.9 | 198 |
| | 주간보호시설 | 0.0 | 0.0 | 100.0 | 0.0 | 100.0 | 1.5 | 7.6 | 90.9 | 198 |
| | 치매 상담센터 | 0.0 | 2.0 | 98.0 | 0.0 | 100.0 | 2.0 | 7.1 | 90.9 | 198 |
| | 경로식당/무료급식 | 0.0 | 15.2 | 84.8 | 0.5 | 99.5 | 43.4 | 14.6 | 41.9 | 198 |
| | 노인식사배달 | 0.0 | 37.4 | 62.6 | 0.0 | 100.0 | 83.2 | 5.6 | 11.2 | 198 |
| | 자사지원 서비스 | 50.0 | 44.4 | 5.6 | 52.5 | 47.5 | 84.8 | 4.0 | 11.1 | 198 |
| | 방문간호 서비스 | 0.0 | 64.6 | 35.4 | 8.1 | 91.9 | 69.7 | 3.0 | 27.3 | 198 |
| 보장구 대여 서비스 | 0.0 | 0.0 | 100.0 | 0.0 | 100.0 | 10.6 | 2.5 | 86.9 | 198 | |
| 노인장기요양보험 | 0.0 | 71.7 | 28.3 | 0.5 | 99.5 | 22.2 | 2.5 | 75.3 | 198 |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4. 장애인

○ 장애인의 62.2%가 현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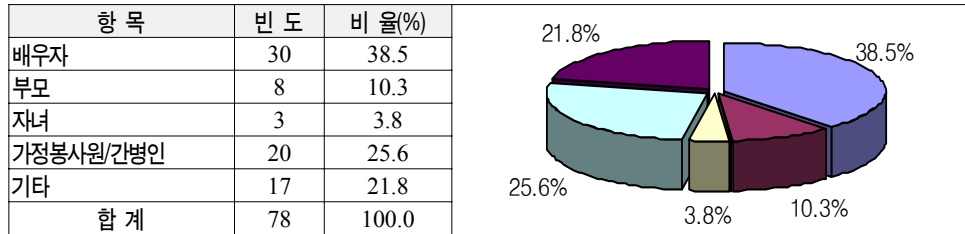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3]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여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38.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, 다음으로 가정봉사원, 간병인 25.6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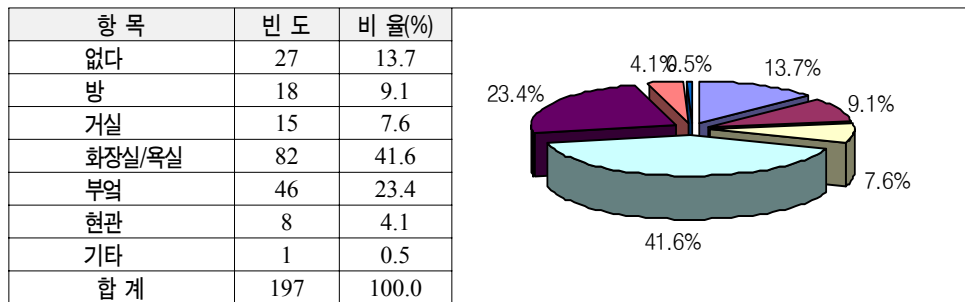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4]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현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, 장애인의 41.6%가 화장실/욕실의 불편함을 호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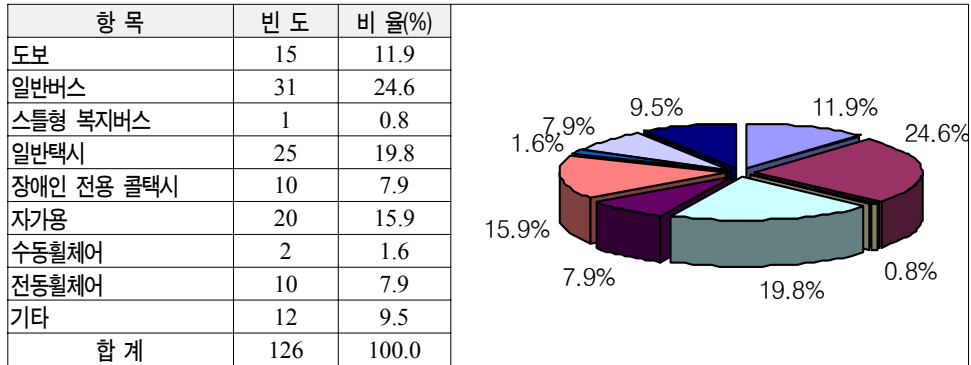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5] 장애로 인해 집에서 불편한 곳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가 24.6%로 가장 높았고, 일반택시 19.8%, 자가용이 15.9% 등의 순으로 파악됨.

[그림 3-36] 이용하는 교통수단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사회적 차별 및 아래와 같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.

<표 3-6> 사회적 차별 등 생활의 어려움 경험 유무

| 경 험 | (단위 : %) | | | | 빈 도(명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| 전혀없다 | 거의없다 | 가끔있다 | 자주있다 | |
|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| 12.8 | 28.2 | 45.3 | 13.7 | 117 |
|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| 12.8 | 26.5 | 27.4 | 33.3 | 117 |
|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| 6.0 | 18.1 | 42.2 | 33.6 | 116 |
|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| 6.9 | 26.7 | 39.7 | 26.7 | 116 |
| 결혼(이성교제 포함)의 어려움 | 54.3 | 19.8 | 12.1 | 13.8 | 116 |
| 자녀양육의 어려움 | 16.4 | 15.5 | 45.7 | 22.4 | 116 |
| 장애의 재활 및 치료의 어려움 | 6.9 | 19.8 | 37.9 | 35.3 | 116 |
|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, 가족간 불화 | 11.2 | 31.9 | 43.1 | 13.8 | 116 |
| 성문제(성욕구 해결 포함) | 74.8 | 13.0 | 7.8 | 4.3 | 115 |
| 음주(불법 약물 포함)남용 | 82.8 | 9.5 | 6.0 | 1.7 | 116 |
| 여가나 취미, 문화활동의 어려움 | 22.4 | 31.0 | 37.9 | 8.6 | 116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영양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은 다음과 같음.

〈표 3-7〉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서비스 실태

(단위: %)

| 항 목 | 인지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잘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비해당 |
| 종합사회복지관 | 36.1 | 46.2 | 17.6 | 37.8 | 62.2 | 76.3 | 21.1 | 2.6 |
| 장애인 복지관 | 18.5 | 20.2 | 61.3 | 11.8 | 88.2 | 32.2 | 13.6 | 54.2 |
| 장애인 생활시설 | 15.1 | 26.1 | 58.8 | 6.8 | 93.2 | 38.1 | 20.3 | 41.5 |
| 공동생활가정 | 5.9 | 18.5 | 75.6 | 2.5 | 97.5 | 24.4 | 33.6 | 42.0 |
| 단기 보호시설 | 6.7 | 27.7 | 65.5 | 2.5 | 97.5 | 27.1 | 29.7 | 43.2 |
| 재활 병·의원 | 33.6 | 52.9 | 13.4 | 68.6 | 31.4 | 82.9 | 13.7 | 3.4 |
| 장애인 직업훈련원 | 5.9 | 12.6 | 81.5 | 0.8 | 99.2 | 11.9 | 25.4 | 62.7 |
|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| 5.9 | 6.7 | 84.4 | 1.7 | 98.3 | 15.3 | 23.7 | 61.0 |
| 특수학교 | 10.1 | 12.6 | 77.3 | 2.5 | 97.5 | 5.9 | 28.0 | 66.1 |
| 장애인 스포츠센터 | 1.7 | 8.4 | 89.9 | 0.8 | 99.2 | 11.1 | 23.1 | 65.8 |
| 장애인 심부름센터 | 1.7 | 8.4 | 89.9 | 12.7 | 87.3 | 70.3 | 28.0 | 1.7 |
| 수화통역센터 | 13.4 | 43.7 | 42.9 | 3.4 | 96.6 | 43.6 | 50.4 | 6.0 |
| 사회복지시설 | 10.1 | 24.4 | 65.5 | 0.0 | 100.0 | 28.6 | 42.9 | 28.6 |
| 정신보건센터 | 11.1 | 0.0 | 88.9 | 0.0 | 100.0 | 28.6 | 42.9 | 28.6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영양군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은 다음과 같으며,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항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음.

〈표 3-8〉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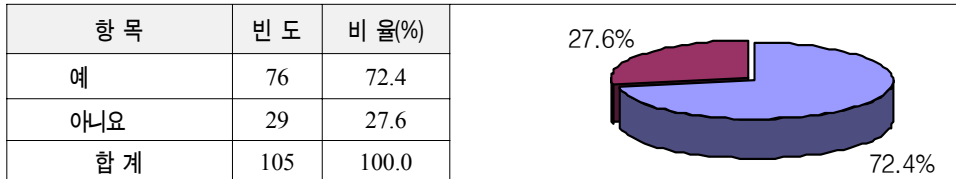
| 항 목 | 인지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잘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비해당 |
| 의료서비스수술 물리 운동 약물 등 | 47.9 | 37.8 | 14.3 | 74.4 | 25.6 | 94.9 | 4.3 | 0.9 |
| 교육 재활특수교육 언어치료 포함 | 9.2 | 16.0 | 74.8 | 4.3 | 95.7 | 16.9 | 21.2 | 61.9 |
| 사회 재활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 | 8.4 | 15.1 | 76.5 | 3.4 | 96.6 | 16.2 | 19.7 | 64.1 |
| 심리 재활심리 치료 및 상담 | 6.7 | 15.1 | 78.2 | 2.6 | 97.4 | 16.1 | 20.3 | 63.6 |
| 여가 활동프로그램 | 7.6 | 52.1 | 40.3 | 13.9 | 86.1 | 53.9 | 25.2 | 20.9 |
| 교통이동 서비스외출도우미 대중교통 요금 할인 | 12.6 | 59.7 | 27.7 | 22.2 | 77.8 | 89.0 | 10.2 | 0.8 |
| 재가 서비스가사도우미 말벗환 전담 | 34.5 | 47.9 | 17.6 | 32.8 | 67.2 | 80.2 | 15.5 | 4.3 |
| 주거 서비스영구임대주택 우선배정 및 입주지 가 산점 부여 등 | 4.2 | 33.6 | 62.2 | 0.9 | 99.1 | 55.9 | 39.0 | 5.1 |
| 소득 보장장애수당급여, 자녀 교육비 지원, 자립자금 대여 등 | 25.2 | 45.4 | 29.4 | 48.3 | 51.7 | 77.6 | 19.0 | 3.4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5. 여성

○ 여성의 취업률은 72.4%로 나타나,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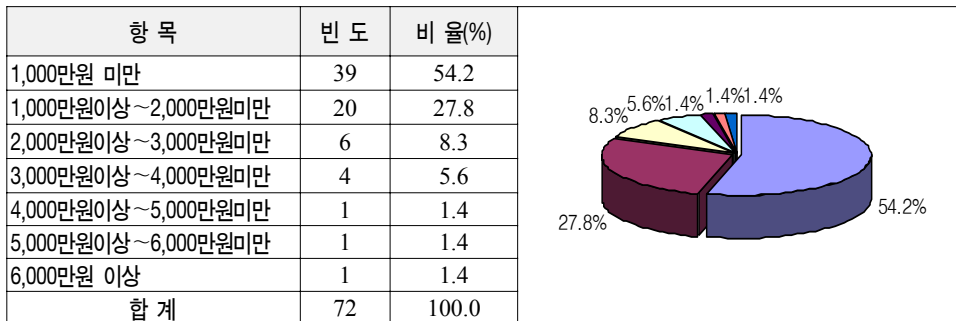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7] 소득 종사 유무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취업여성의 연 소득은 1,000만원 미만이 54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, 취업여성의 약 82%가 연2,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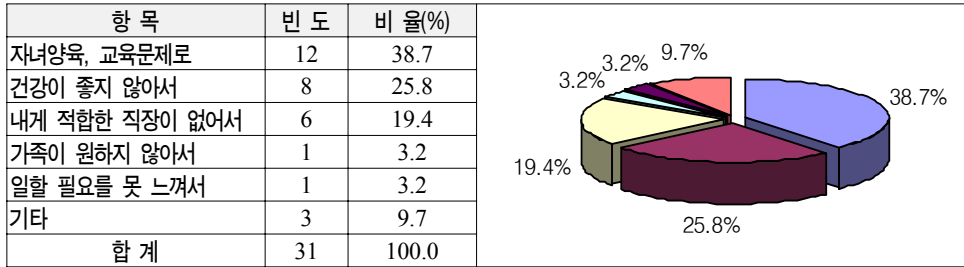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8] 소득별 분포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,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가 38.7%로 높았고, 다음으로 건강문제, 자신에게 맞는 직장이 없어서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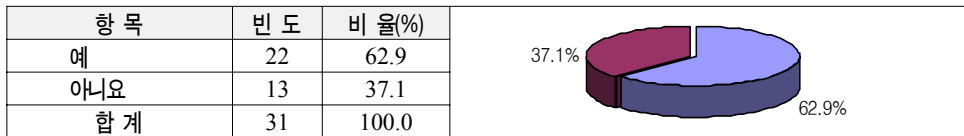
[그림 3-39] 일을 하지 않는 이유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비취업자의 62.9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3-40] 취업 희망 의도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○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은 결과,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26.5%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학력, 기능, 자격이 맞지 않아서, 가사나 육아문제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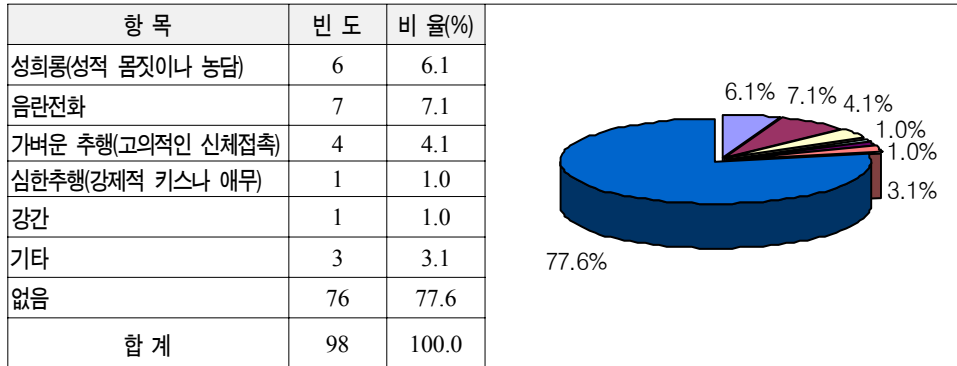
[그림 3-41] 직장구직의 애로사항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성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피해를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7.6%가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, 그 외 음란전화와 성희롱, 가벼운 추행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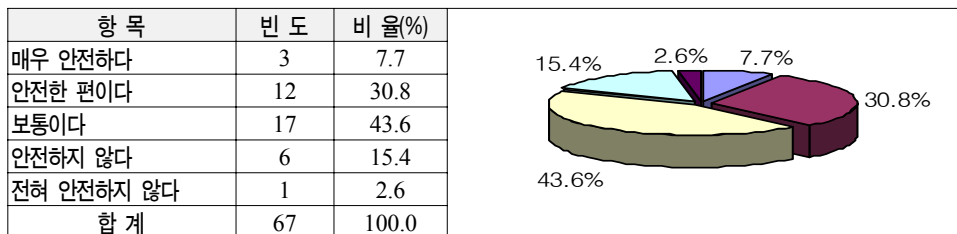
[그림 3-42] 성범죄 관련 피해 본 사례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귀하의 주변 환경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보통이다 43.6%, 안전한 편 30.8%이었음.

[그림 3-43] 성범죄 관련 지역 안전도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성범죄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응답자가 46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, 지역사회에 없다는 의견은 23.1%로 나타남.

[그림 3-44] 성범죄 관련 도움 요청 방법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영양군 여성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.

<표 3-9> 여성 관련 기관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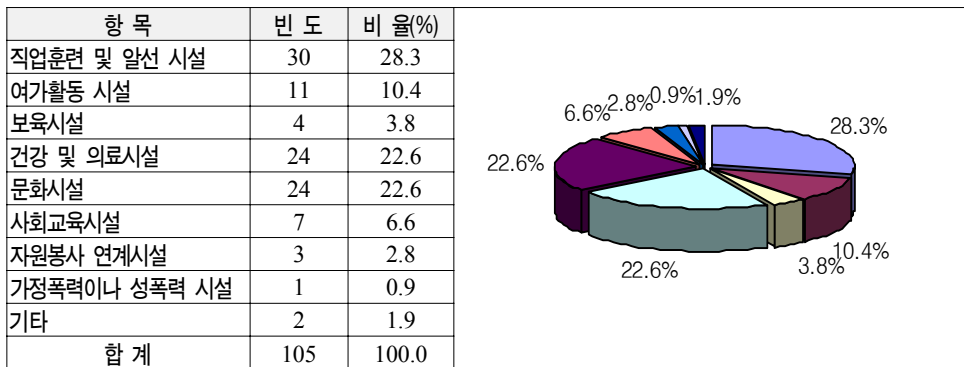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항 목 | 인 지 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빈도 (명)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
| | 잘 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|
|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| 39.0 | 45.7 | 15.2 | 33.7 | 66.3 | 80.9 | 19.1 | 105 |
| 여성상담전화 | 13.6 | 24.3 | 62.1 | 0.0 | 100.0 | 57.0 | 43.0 | 103 |
| 여성농업인 센터 | 14.0 | 28.0 | 58.0 | 9.6 | 90.4 | 56.7 | 43.3 | 100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양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질문한 결과, 직업 훈련 및 알선 시설, 건강 및 의료시설, 문화시설 순으로 나타남.

[그림 3-45] 영양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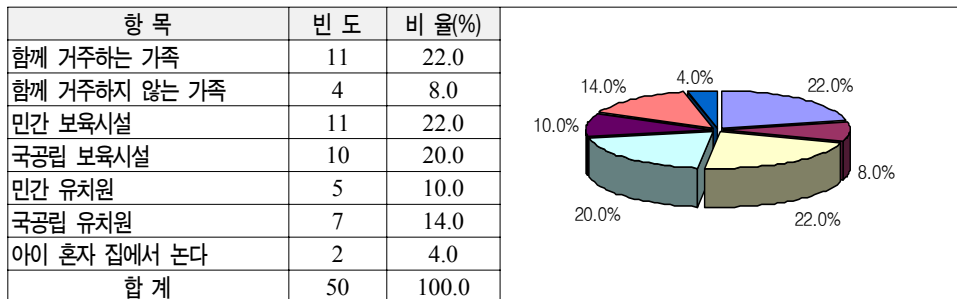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6. 취학전 아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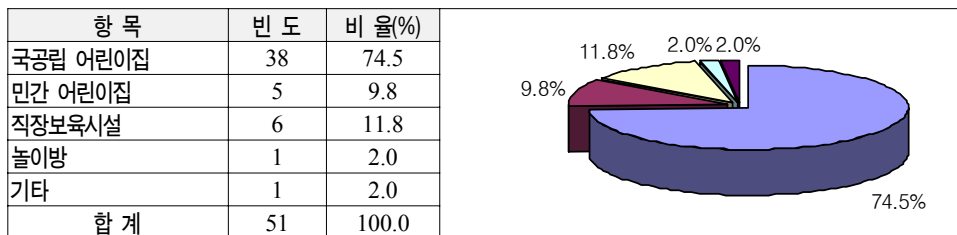
- 취학 전 자녀는 낮 시간에 누가 돌보는지에 대해,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가장 높은 22.0%를 차지함.

[그림 3-46] 낮 시간 돌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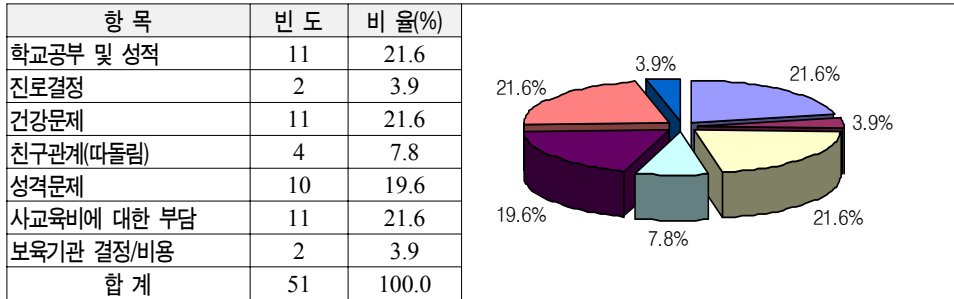
-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로 나타남.

[그림 3-47] 선호 보육시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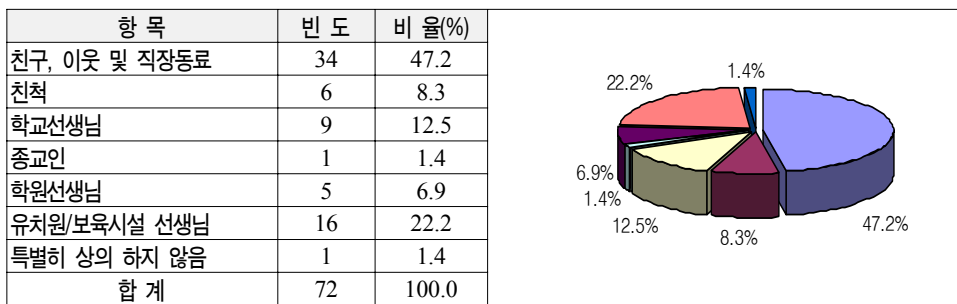
- 자녀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학교공부 및 성적, 건강문제, 성격문제,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각각 21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[그림 3-48] 자녀의 염려되는 문제



- 자녀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, 가족 외 주로 상담하는 사람은 친구, 이웃 및 직장 동료가 가장 높은 47.2%이며, 다음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선생님이었음.

[그림 3-49] 자녀 고민상담 대상



- 영양군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은 다음과 같음.

<표 3-10>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과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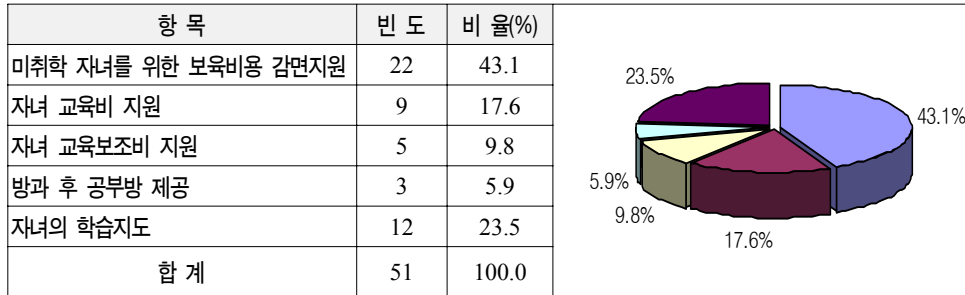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항 목 | 인지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잘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비해당 |
| 지역아동센터 | 16.3 | 22.4 | 61.2 | 4.2 | 95.8 | 61.4 | 31.8 | 6.8 |
| 청소년수련원 | 34.0 | 40.4 | 25.5 | 26.5 | 73.5 | 65.2 | 19.6 | 15.2 |
| 영양군종합복지회관 | 28.6 | 46.9 | 24.5 | 18.4 | 81.6 | 79.3 | 17.4 | 4.3 |
| 영양공공도서관 | 42.9 | 42.9 | 14.3 | 57.1 | 42.9 | 87.0 | 10.9 | 2.2 |
| 청소년 상담실 | 2.0 | 18.4 | 79.6 | 2.0 | 98.0 | 43.5 | 26.1 | 30.4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비용 감면 지원이 43.1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은 자녀의 학습지도가 23.5%로 많이 원하고 있었음.

[그림 3-50] 자녀양육과 관련 필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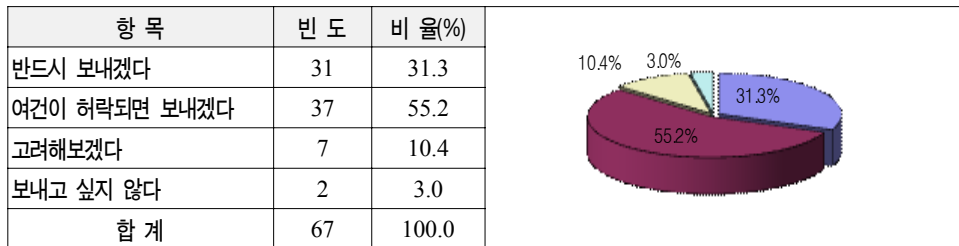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7. 초등학생(아동)

- 응답자의 86.5%가 초등학생 이동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보내고 싶다고 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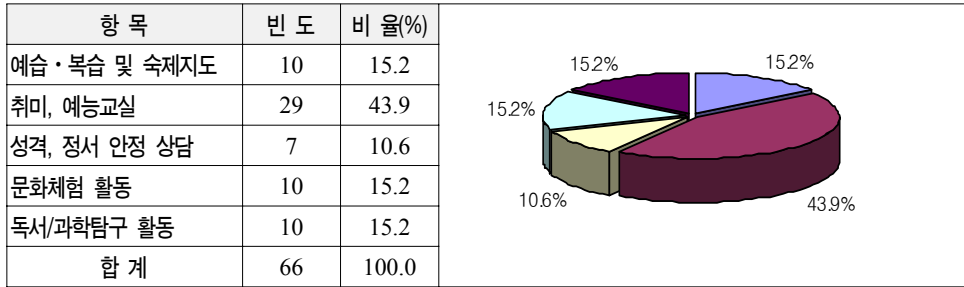
[그림 3-51] 방과 후 프로그램 보낼 의향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 결과, 취미/예능교실이 43.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숙제지도, 문화 체험 등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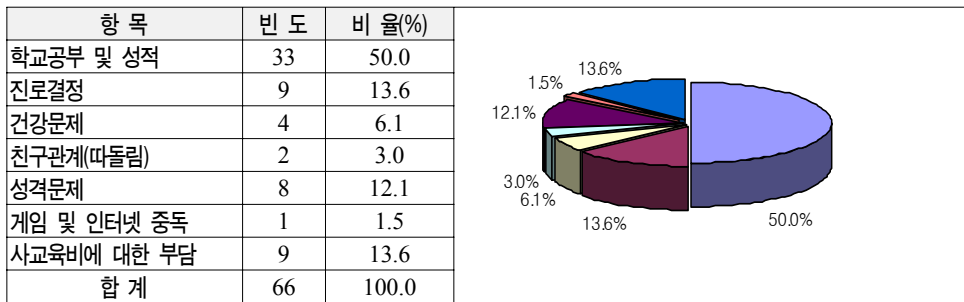
[그림 3-52] 방과 후 필요 프로그램 내용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자녀의 가장 염려되는 문제에 대하여, 학교공부 및 성적이 50.0%로 가장 높았으며, 진로결정,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의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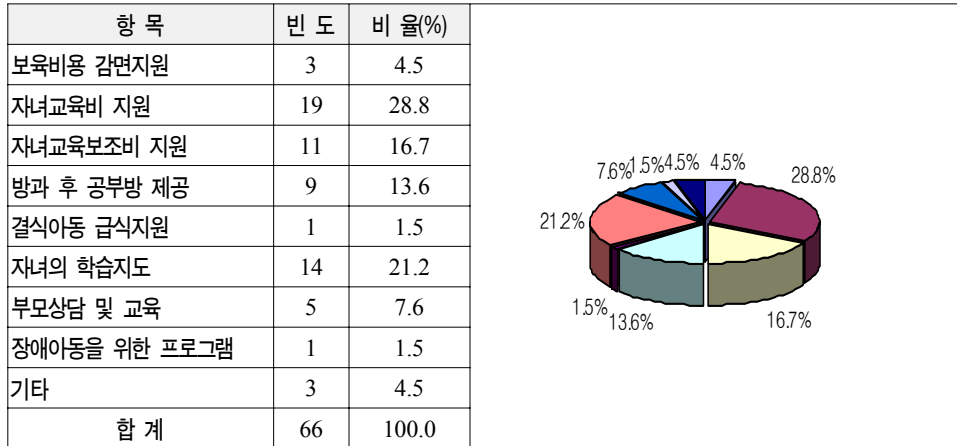
[그림 3-53] 자녀의 가장 염려 되는 문제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교육비 지원이 28.8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자녀의 학습지도, 자녀교육보조비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그림 3-54] 자녀양육과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

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- 영양군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은 각 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,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<표 3-11>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인지도, 이용경험, 이용의향

(단위: %)

| 항 목 | 인지도 | | | 이용경험 | | 이용의향 | | |
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잘 안다 | 조금 안다 | 모른다 | 있다 | 없다 | 있다 | 없다 | 비해당 |
| 지역아동센터 | 35.9 | 9.4 | 54.7 | 23.4 | 76.6 | 54.0 | 33.3 | 12.7 |
| 청소년수련원 | 21.7 | 50.0 | 28.3 | 45.2 | 54.8 | 69.5 | 20.3 | 10.2 |
| 종합복지회관 | 29.0 | 43.5 | 27.4 | 37.1 | 62.9 | 74.2 | 19.4 | 6.5 |
| 영양공공 도서관 | 48.4 | 40.3 | 11.3 | 71.0 | 29.0 | 83.6 | 11.5 | 4.9 |
| 청소년 상담실 | 1.6 | 13.1 | 85.2 | 0.0 | 100.0 | 48.4 | 37.1 | 14.5 |

자료: <표 3-1>과 동일

제2절 영양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²⁾

□ 영양군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결혼이 96.6%로 전국 평균 79.2%보다 현저히 높았음.

- 이는 ‘농촌 총각’의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.

〈표 3-12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결혼 | 취업 | 친척방문 | 사업/업무 | 유학 | 기타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 평균 | 79.2 | 7.3 | 4.0 | 3.5 | 2.1 | 3.9 | 100.0(129,080) |
| 영양군 | 96.9 | - | - | - | 2.0 | 1.1 | 100.0(99) |
| 연령 |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44) |
| 25~29세 | 92.3 | - | - | - | 7.7 | - | 100.0(26) |
| 30~34세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8) |
| 35~39세 | 90.0 | - | - | - | - | 10.0 | 100.0(10) |
| 40~49세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10) |
| 50세 이상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1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17) |
| 중학교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24) |
| 고등학교 | 92.7 | - | - | - | 4.9 | 2.4 | 100.0(41) |
| 대학 이상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100.0(18) |

자료: 김승권 외, 『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』, 보건복지가족부·법무부·여성부, 2010; 『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』 재분석.

□ 영양군 거주 국제결혼 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25.3%로 전국 평균 31.1%보다 다소 낮았음.

- 국적 미취득자 중 향후 국적 취득 예정은 77.9%이었고,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응답자는 9.1%였음.
-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없었음.

2) 『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』 중 영양군 해당자료인 101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석하였음.

〈표 3-13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한국국적 취득여부 | | 향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계획 여부 ¹⁾ | | |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| (분석대상) | 취득률 | 국적 취득 예정 | 영주권만 취득예정 | 예정 없음 | 모름 | |
| 한국 평균 | (129,220) | 31.1 | 72.0 | 13.1 | 2.1 | 12.8 | 100.0(74,813) |
| 영양군 | (98) | 25.3 | 77.9 | 9.1 | - | 13.0 | 100.0(59) |
| 연령 |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(46) | 15.2 | 88.5 | - | - | 11.5 | 100.0(26) |
| 25~29세 | (25) | 24.0 | 83.3 | 11.1 | - | 5.6 | 100.0(18) |
| 30~34세 | (7) | 57.1 | 33.4 | 33.3 | - | 33.3 | 100.0(3) |
| 35~39세 | (10) | 40.0 | 80.0 | - | - | 20.0 | 100.0(5) |
| 40~49세 | (9) | 22.2 | 40.0 | 40.0 | - | 20.0 | 100.0(5) |
| 50세 이상 | (1)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(15) | 6.7 | 100.0 | - | - | - | 100.0(12) |
| 중학교 | (25) | 8.0 | 85.0 | - | - | 15.0 | 100.0(20) |
| 고등학교 | (40) | 37.5 | 62.5 | 25.0 | - | 12.5 | 100.0(16) |
| 대학 이상 | (18) | 38.9 | 70.0 | 10.0 | - | 20.0 | 100.0(10) |

주: 1)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.
 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- 영양군에 거주하는 상당수 국제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말하기에 능숙하지 못함.
 - (매우) 잘한다는 비율은 21.6%로 전국 평균 37.3%보다 낮았으며, (매우)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22.1%로 전국 평균 24.0%보다 미미하나마 낮았음.

〈표 3-14〉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한국어 말하기 능력 | | | |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매우 잘한다 | 잘한다 | 보통이다 | 서툰 편이다 | 매우 서툴다 | |
| 한국 평균 | 17.4 | 19.9 | 38.7 | 17.8 | 6.2 | 100.0(128,824) |
| 영양군 | 8.6 | 13.0 | 56.3 | 14.4 | 7.7 | 100.0(100) |
| 연령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4.3 | 17.8 | 55.6 | 15.6 | 6.7 | 100.0(45) |
| 25~29세 | - | 7.7 | 61.5 | 23.1 | 7.7 | 100.0(26) |
| 30~34세 | 42.9 | 28.6 | 14.2 | 14.3 | - | 100.0(7) |
| 35~39세 | 10.0 | 10.0 | 60.0 | 10.0 | 10.0 | 100.0(10) |
| 40~49세 | 20.0 | - | 70.0 | - | 10.0 | 100.0(10) |
| 50세 이상 | - | - | 100.0 | - | - | 100.0(1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6.7 | - | 53.3 | 20.0 | 20.0 | 100.0(15) |
| 중학교 | 4.0 | 8.0 | 68.0 | 12.0 | 8.0 | 100.0(25) |
| 고등학교 | 14.6 | 12.2 | 51.3 | 19.5 | 2.4 | 100.0(41) |
| 대학 이상 | - | 29.4 | 64.7 | - | 5.9 | 100.0(17) |
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□ 영양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 또한 능숙한 수준이 아님.

○ (매우) 잘한다는 비율은 25.8%로 전국 평균 38.0%보다 낮았으며, (매우)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12.1%로 전국 평균 24.2%보다 낮았음.

〈표 3-15〉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한국어 읽기 능력 | | | |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매우 잘한다 | 잘 한다 | 보통이다 | 서툰 편이다 | 매우 서툴다 | |
| 한국 평균 | 17.5 | 20.5 | 37.8 | 17.0 | 7.2 | 100.0(119,646) |
| 영양군 | 10.6 | 15.2 | 62.1 | 7.3 | 4.8 | 100.0(91) |
| 연령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2.4 | 17.1 | 63.5 | 14.6 | 2.4 | 100.0(41) |
| 25~29세 | 4.3 | 13.1 | 74.0 | 4.3 | 4.3 | 100.0(23) |
| 30~34세 | 42.9 | - | 57.1 | - | - | 100.0(7) |
| 35~39세 | 11.1 | 44.5 | 33.3 | - | 11.1 | 100.0(9) |
| 40~49세 | 22.2 | - | 66.7 | - | 11.1 | 100.0(9) |
| 50세 이상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1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9.1 | 27.3 | 54.5 | - | 9.1 | 100.0(11) |
| 중학교 | 4.3 | 21.7 | 61.0 | 8.7 | 4.3 | 100.0(23) |
| 고등학교 | 20.5 | 10.3 | 56.4 | 10.3 | 2.5 | 100.0(39) |
| 대학 이상 | - | 5.9 | 88.2 | - | 5.9 | 100.0(17) |
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〈표 3-16〉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한국어 쓰기 능력 | | | |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매우 잘한다 | 잘 한다 | 보통이다 | 서툰 편이다 | 매우 서툴다 | |
| 한국 평균 | 16.1 | 16.9 | 35.4 | 21.5 | 10.1 | 100.0(119,501) |
| 영양군 | 7.0 | 13.1 | 63.0 | 12.1 | 4.8 | 100.0(91) |
| 연령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- | 19.5 | 58.6 | 19.5 | 2.4 | 100.0(41) |
| 25~29세 | 4.3 | 13.0 | 69.7 | 8.7 | 4.3 | 100.0(23) |
| 30~34세 | 42.9 | 14.2 | 28.6 | 14.3 | - | 100.0(7) |
| 35~39세 | 11.1 | - | 77.8 | - | 11.1 | 100.0(9) |
| 40~49세 | 11.1 | - | 77.8 | - | 11.1 | 100.0(9) |
| 50세 이상 | - | - | 100.0 | - | - | 100.0(1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9.1 | 18.2 | 54.5 | 9.1 | 9.1 | 100.0(11) |
| 중학교 | - | 13.0 | 65.3 | 17.4 | 4.3 | 100.0(23) |
| 고등학교 | 12.8 | 15.4 | 53.8 | 15.4 | 2.6 | 100.0(39) |
| 대학 이상 | - | - | 94.1 | - | 5.9 | 100.0(17) |
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- 영양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도 능숙한 수준이 아님.
 - (매우) 잘한다는 비율은 20.1%로 전국 평균 33.0%보다 낮았으며, (매우)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16.9%로 전국 평균 31.6%보다 현저히 낮았음.
- 영양군 결혼이민자의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현존 자녀수는 평균 0.95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였음.
 - 현 배우자와의 자녀는 30~34세 연령층이 1.34명으로 가장 많았고,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1.07명으로 많았음.

〈표 3-17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현존자녀수 분포 | | | | 평균 |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0명 | 1명 | 2명 | 3명 이상 | 계(수) | 현존자녀수 |
| 전체 | 39.3 | 38.4 | 18.2 | 4.1 | 100.0(120,844) | 0.9 |
| 영양군 | 30.1 | 49.0 | 16.6 | 4.3 | 100.0(98) | 0.95 |
| 연령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47.7 | 43.2 | 9.1 | - | 100.0(44) | 0.63 |
| 25~29세 | 11.5 | 65.4 | 15.4 | 7.7 | 100.0(26) | 1.19 |
| 30~34세 | - | 83.3 | - | 16.7 | 100.0(6) | 1.34 |
| 35~39세 | 20.0 | 50.0 | 20.0 | 10.0 | 100.0(10) | 1.22 |
| 40~49세 | 22.2 | 22.2 | 55.6 | - | 100.0(9) | 1.32 |
| 50세 이상 | 100.0 | - | - | - | 100.0(1) | -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25.0 | 56.3 | 18.7 | - | 100.0(16) | 0.94 |
| 중학교 | 33.3 | 54.2 | 12.5 | - | 100.0(24) | 0.82 |
| 고등학교 | 26.8 | 46.4 | 19.5 | 7.3 | 100.0(41) | 1.07 |
| 대학 이상 | 38.9 | 44.4 | 11.1 | 5.6 | 100.0(18) | 0.87 |
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-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45.6%로 전국 평균 57.0%보다 낮았음.
 -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시설 또는 기관을 질문할 결과, 영양군은 어린이집이 64.5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유치원 35.5%이었음.

□ 이와 같이 보육·교육시설(기관)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이었음.

○ 가장 큰 문제가 되는 ‘봐주는 사람이 없음’은 단 한 가구도 없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.

〈표 3-20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보육·교육시설(기관)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돌보는 사람¹⁾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봐주는 사람 없음 (아이 혼자 지냄) | 본인 또는 배우자 | 기타 가족 | 파출부· 도우미 | 이웃·친구 (아이만 보는 사람) | 기타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한국 평균 | 4.1 | 82.4 | 10.8 | 0.6 | 0.4 | 1.7 | 100.0(18,582) |
| 영양군 | - | 95.8 | 4.2 | - | - | - | 100.0(26) |
| 연령 |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9) |
| 25~29세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11) |
| 30~34세 | - | 50.0 | 50.0 | - | - | - | 100.0(2) |
| 35~39세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3) |
| 40세 이상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1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3) |
| 중학교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8) |
| 고등학교 | - | 85.7 | 14.3 | - | - | - | 100.0(7) |
| 대학 이상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8) |

주: 1)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.
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□ 초등학생을 방과후 돌보아 주는 사람은 ‘기타 가족’과 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’이 각각 25.0%로 가장 높았음.

○ 문제가 되는 ‘아이 혼자 지냄’은 영양군이 33.4%로 전국 평균 14.2%보다 높았음.

□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는 91.7%로 전국 평균 83.5%보다 8.2%pt 높았음.

○ 영양군의 다문화가족은 ‘학습지도’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고(25.7%), 다음은 ‘숙제 지도하기’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음(24.4%).

○ 전국적으로는 ‘학원비 마련’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‘학습지도(예습 및 복습)’로 나타나 영양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.

〈표 3-21〉 결혼이민자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¹⁾
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아이 혼자 자녀 | 본인 또는 배우자 | 기타 가족 |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| 방과후 보육시설 | 사설 학원 | 기타 ²⁾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한국 평균 | 14.2 | 40.2 | 8.8 | 13.3 | 6.9 | 13.3 | 3.3 | 100.0(13,678) |
| 영양군 | 33.4 | 16.6 | 25.0 | 25.0 | - | - | - | 100.0(13) |
| 연령 | |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25~29세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30~34세 | - | 50.0 | 50.0 | - | - | - | - | 100.0(2) |
| 35~39세 | 50.0 | 25.0 | 25.0 | - | - | - | - | 100.0(4) |
| 40세 이상 | 33.3 | - | 16.7 | 50.0 | - | - | - | 100.0(6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중학교 | 100.0 | - | - | - | - | - | - | 100.0(1) |
| 고등학교 | 25.0 | 25.0 | 25.0 | 25.0 | - | - | - | 100.0(8) |
| 대학 이상 | 33.4 | - | 33.3 | 33.3 | - | - | - | 100.0(3) |

주: 1) 초등학생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; 2) 기타에는 파출부·도우미, 이웃·친구 등이 포함됨.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〈표 3-22〉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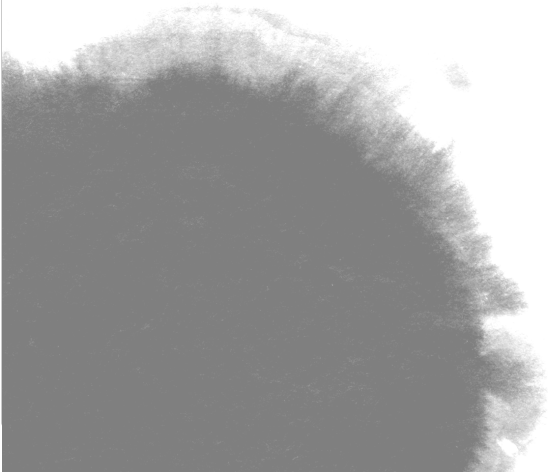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명)

| 구분 | 어려움 없음 | 알림장 챙기기 | 숙제 지도 하기 | 학습지도 (예습 및 복습) | 학원비 미련 | 학교생활 부적응/ 학습부진 | 기타 | 계(수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한국 평균 | 16.5 | 2.8 | 19.8 | 23.2 | 27.4 | 5.0 | 5.3 | 100.0(13,605) |
| 영양군 | 8.3 | - | 24.4 | 25.7 | 16.4 | 16.9 | 8.3 | 100.0(13) |
| 연령 | | | | | | | | |
| 24세 이하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25~29세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30~34세 | - | - | - | - | - | 50.0 | 50.0 | 100.0(2) |
| 35~39세 | 25.0 | - | 25.0 | 50.0 | - | - | - | 100.0(4) |
| 40세 이상 | - | - | 33.3 | 16.7 | 33.3 | 16.7 | - | 100.0(6) |
| 교육수준 | | | | | | | | |
| 초등학교 이하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중학교 | - | - | 100.0 | - | - | - | - | 100.0(1) |
| 고등학교 | 12.5 | - | 12.5 | 25.0 | 12.5 | 25.0 | 12.5 | 100.0(8) |
| 대학 이상 | - | - | 33.4 | 33.3 | 33.3 | - | - | 100.0(3) |

주: 1)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.
자료: <표 3-12>와 동일

04

영양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언



제4장 영양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

제1 절 기본방향³⁾

- 영양군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평가결과는 232개 지자체 중 평균 19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(최고 158위, 최저 229위).
 -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부서 직원의 노력이 한층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부연 설명하면,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,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, 추진과정에서도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영양군의 현재 복지환경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이를 적극 고려한 정확한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이 요구됨.
 - 영양군의 미래 인구 및 가구 특성의 변화, 지역개발 등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 - 특히, 영양군이 가진 지역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, 효과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.

3) 기본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2011년 컨설팅 대상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제시함.

-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해서만이 영양군의 지역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,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임.

□ 영양군의 공공복지조직이 인구특성, 복지욕구,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구조화의 여지가 없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○ 복지기획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업무, 일자리 사업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.

○ 여성정책담당 업무로 아동복지, 청소년정책, 가족복지, 여성정책, 보육 등이 있으나 인력은 5인에 불과하여 인력배치 또는 업무분장이 적절한지, 업무성과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.

□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지재정의 확충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○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, 어떤 유형의 시설이 부족 또는 많은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.

○ 이러한 판단 하에 복지시설 확충, 또는 통폐합, 기능전환 등 복지분야별 균형적으로 시설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, 군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○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.

-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파악하고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중장기 측면에서 적정수준에 도달되어 있는지, 기능 및 역할의 중복성은 없는지를 검토함.

- 현재와 미래를 감안하여, 부족한 시설유형과 과도한 시설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며, 필요하다면 시설의 기능전환, 통폐합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함.

- 복지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수 민간복지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- 또한 민간복지인력의 겸직금지 등 규정 준수를 통하여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체계 구축 등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.
- 특히,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유형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임.
 -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민간 복지관계자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설득이 필요함.
 - 이는 복지시설이 설치되면 시설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.
- 지자체 스스로 지역복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영양군 차원의 복지재정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 -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매칭펀드로서의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양적 및 질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복지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.
 -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.
 -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, 민간복지기관, 지역사회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,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추진 노력이 필요함.
 - ‘설정된 지역사회 복지정책’에 소요되는 재원을 파악하고,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며, 특히 공공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.
-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양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강구되어 함
 -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.
 - 민간복지재원은 지역사회와 영양군 출신 유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민간자원 개발이 적극 요구됨.

- 민간재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투명성 및 활용처가 공개되어야 함.
- 민간복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질적 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.
- 민간복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제고하는 방안과 실비(實費)보상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

□ 지자체 스스로 ‘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성과관리’를 강화함.

- 성과관리는 조직이나 팀, 개인들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케 하고,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장치 및 노력을 의미함(김승권 외, 2008).
-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.
 - 업무량 측정(workload measures)은 수행된 업무의 양이나 제공된 서비스의 양을 나타냄.
 - 능률성 측정(efficiency measures)은 수행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자원의 관계를 보여주며, 일반적으로 능률성은 단위비용의 형태로 측정됨.
 - 효과성 측정(effectiveness measures)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나 수행된 업무의 질을 나타냄.
 - 생산성 측정(productivity measures)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측정하는 것임.

$$\text{능률성} = \frac{\text{산출(output)}}{\text{투입(input)}} = \frac{\text{효과}}{\text{비용}} = \text{효율성}$$

- 각 영역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평가지표를 최소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.

– 복지총괄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복지총괄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•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•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• 인구 1인당 복지사업비(일반회계) •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•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•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복지계획 수립여부 • 지역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성 • 지역복지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여부 •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 •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•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• 전체시설대비 미신고시설의 비율 •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•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·심의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시설의 충분성(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) •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리수준 • 이용시설의 충분성(사회복지이용시설의 이용률, 인구 1,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) •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수준 •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•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•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• 인구 천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•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활동시간 •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•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 실적 •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 및 예산규모 • 지역복지 민관협력 사업 건수 |

–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• 노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여부 • 노인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노인수 •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•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• 노인 이용시설 설치율 • 노인이용시설 이용노인수(노인 1인당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횟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• 노인복지관련 지자체 (특수)사업의 수 • 노인일자리 제공률(공공분야+민간분야) •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•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• 기초노령연금 변동자료 적기처리 |

– 아동·청소년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• 청소년 1인당 청소년정책사업비 •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•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1인당 청소년수 • 아동 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• 읍·면·동 아동위원 배치율 • 아동1인당 아동복지 특수시책 사업수 및 사업비 • 아동복지이양사업비 및 실적증감률 • 아동보호(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) 관련 전달체계 구축수준 •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과후 아동보호비율 •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 지원계좌) 저축률 •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율 •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 • 아동 문화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·교육실시 •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•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성화 정도 •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• 아동참여율(아동 조사 및 시책반영, 아동 총회, 아동 권리위원회, 아동위원회 등 개최, 기타 아동의견수렴 반영) |

－ 보육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보육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유아1인당 보육예산 • 보육수요 충족률 •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• 보육시설 이용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• 취약보육실시율 • 보육시설 인권침해 발생률 • 보육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|

－ 장애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장애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장애인수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 •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 •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 •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(생활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 등) •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 •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 수 • 장애인복지 사업관련 특수사업 지원 예산 •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•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•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•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•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•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•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• 충족 품목 비율 |

－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시행률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제공기관 참여율 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취업자 수 • 사회서비스 예산대비 집행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생액 대비 이용액 실적 •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•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|

－ 기초보장 및 자활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기초보장 및 자활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소득층 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보장담당년수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활용실적 •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• 민간 및 타기관 연계 발굴 실적 • 탈수급실적 •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자 가구수 • 급여조정의 정확성 및 실적 •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 실적 • 자활사업 조건 이행률(불이행률) • 자활사업 참여율 • 자활참여자의 취업·창업률 •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• 자활기금 활용실적 •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•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정도 •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) 등 사업운영 규모 |

– 의료급여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.

| 의료급여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자격관리 신속처리율 •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• 의료급여제도 홍보실적 • 의료급여제도 교육실적 •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•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•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•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진료비 증감률 |

□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전달체계 효율화·체계화·연계화를 강화함.

○ 적절한 수준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, 서비스 효과 극대화, 복지의 효율성 증대 등 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,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제한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정책 및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(김승권 외, 2006, 2007).

○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.

- 지역사회에 널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함.
- 복지기관 중 기능의 중복성을 가진 기관을 조정하고, 누락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제공주체를 명확히 설정함.
-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), 복지관련 각종 위원회, 복지위원, 아동위원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함.
- 급속히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를 최대한 활용한 복지사업(홈페이지, 인터넷, 업무의 전산화 구축 등)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사통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.

제2절 복지영역별 발전방안

- 아래 제시하는 복지영역별 발전방안은 향후 영양군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, 이는 2010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됨.
 - 복지총괄, 아동·청소년, 보육, 장애인, 지역사회서비스, 자활 등의 영역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.
 - 영양군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최대한 고려하고,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일치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.
 - 무엇보다 자활 영역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함으로써 매우 부진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각 영역별 세부지표를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. 복지총괄

- 복지총괄 종합의견
 - 영양군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,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,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.
 - － 특히,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,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는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하였음.
- 복지총괄 영역의 개선방안
 -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, 특히 종사자보고 사회복지시설의 온라인 보고율을 높여야 함.
 - － 종사자보고 대상 사회복지시설 7개소 중 3개소만이 온라인 보고를 하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.
 - 자원봉사자의 확충과 봉사시간의 늘릴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-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1인당 봉사시간은 전국 평균의 75.3%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전국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.
- 이는 부족한 민간복지종사자를 대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임.
-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수립된 지역복지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 - 협의체 위원의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.
- 지역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.
 -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수준을 꺾을 수 있는 사업 증설이 필요하며,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.
 - 민관협력건수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개발·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.
 - 지역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의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.

2. 노인복지

- 노인복지 종합의견
 - 영양군의 노인복지 영역은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결과를 보임.
- 노인복지 영역의 개선방안
 - 영양군 노인비율의 증가를 감안하여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전국 평균수준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.

-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민간시장의 활성화, 공공시설 확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함.

○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영양군의 노인비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 발전방안을 제시함.

- 부부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함.

-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.

-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소득보장, 활발한 노후생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.

-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대간 갈등해소 및 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함.

3. 아동·청소년정책

□ 아동·청소년 영역 종합의견

○ 아동복지는 대체로 잘 추진되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함.

○ 즉,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하였음을 보여줌.

□ 아동·청소년 정책영역의 개선방안

○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함.

-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,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함.

•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단속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○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을 적극

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.

-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영양군의 미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함.
 - 아동 및 청소년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, 구체적인 방안은 영양군의 여건에 알맞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,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는 필수적이라 판단됨.
 -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, 가정위탁아동,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동, 공동생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‘출발선에서의 기회균등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4. 보육

□ 보육 종합의견

- 보육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 중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하였음을 보여줌.
- 또한 취약보육실시율도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결과를 보임.
- 이는 보육서비스의 양적,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젊은 연령층의 부부가 자녀양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음.

□ 보육 영역의 개선방안

-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을 대폭 개선하여야 함.
 - 평가인증제도가 제2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 있음은 영양군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됨.
 - 소위 ‘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다’는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.

- 평가인증의 미신청 또는 탈락하는 이유를 명백히 규명하여 영양군 차원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.
- 더 나아가 평가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.
- 영아보육, 장애보육, 시간외 보육,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.
 - 필요하다면, 거점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취약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,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.
-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함.
 -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.
 -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.

5. 장애인복지

□ 장애인복지 종합의견

- 장애인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우 큰 편차를 보였음.
 -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은 만점을 보였음.
 - 반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과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한 사업추진을 나타냈음.

□ 장애인복지 영역의 개선방안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함.
-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거나 현재 잘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함.
 -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되,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장애인이 실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.
 -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,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현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.

6. 지역사회서비스

□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

- 사회서비스는 한국복지의 발전을 위해 최근에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사업임.
-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(지역개발형)’ 지표와 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지역개발형) 시행율’ 지표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저조하므로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.

□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개선방안

-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,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, 서비스 수요 확

대에 따라 보다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.

－ 특히, 3개의 기관이 있음에도 전체 사업수는 2개이고, 복수의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수도 1개에 불과하므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○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거나 현재 잘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함.

－ 제공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고,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이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됨.

－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숙련, 중고령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,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영역임을 주지해야 할 것임.

7. 기초생활보장

□ 기초생활보장 종합의견

○ 기초생활보장 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,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,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,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,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 등 대부분의 세부 평가지표가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공공부조정책이 요구됨.

○ 특히,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□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개선방안

○ 기초보장 영역의 신규수급자 발굴, 긴급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.

－ 특히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만

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- 긴급지원 결정 후 연계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8. 자활

□ 자활 종합의견

- 자활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, 모든 지표는 기본점수(40%)만을 획득하여 매우 부진하였음.

□ 자활영역 개선방안

- 영양군은 지역특성상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활기관을 통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.
 - 자활성공이 복지증진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문임.
- 자활기관을 설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 -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(위탁 등)사업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.
- 자활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의미있는 것은 기금의 활용과 이를 통한 취업 및 창업과 탈수급이므로 공격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.
 -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활참여자 와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.
- 지역자활센터 혹은 관련 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수급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, 탈수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프로그램과 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- 지자체 간부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초로 공무원, 지역 복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, 주기적인 워크숍 혹은 만남을 통해 자활사업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특히,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탈수급·탈빈곤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에서 자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와 직원

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9. 의료급여

□ 의료급여 종합의견

- 의료급여 영역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였으며, 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임.

□ 의료급여 영역 개선방안

- 2010년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거나 현재 잘하고 있지만 걱정된 의료급여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함.
 - －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,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 -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·군·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격오류가 발생할 경우.
 -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.
 -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.
 -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.
 - －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.
 -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이들이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.

참고문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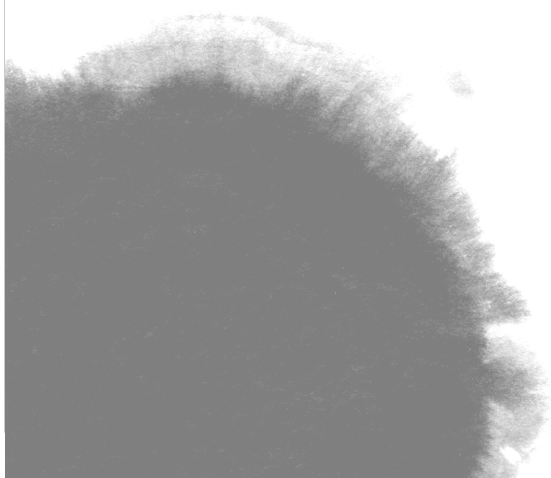
- 김승권 외, 『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0.
- 김승권 외, 『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』, 보건복지가족부·법무부·여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0.
- 김승권 외, 『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9.
- 김승권 외, 『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전략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8.
- 김승권 외, 『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8.
- 김승권 외, 『능동적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』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8.
- 김승권 외, 『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7.
- 김승권 외, 『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(Ⅱ) -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-』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7.
- 김승권 외, 『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』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6.
- 보건복지부, 『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』, 2010.
- 보건복지부, 내부자료, 2010.
- 영양군청, 내부자료, 2011.

영양군청, 통계연보, 2011.

통계청, 「연령별 장래추계인구」, 2009.

통계청, 「인구주택총조사」, 2005.

부 록





[부록 1]

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

1. 종합평가 결과

- 2010 복지정책 평가결과는 7,715점 만점에 평균 5,178.45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67.12점이었음.
 - 최고점수 6,063.71점, 최저점수 4,185.70점으로 약 1.45배의 격차를 보였음(표 1 참조).
 -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, 최고점수는 78.60점, 최저점수는 54.25점이었음.

<표 1> 2010년 복지정책 평가 총점

(단위: 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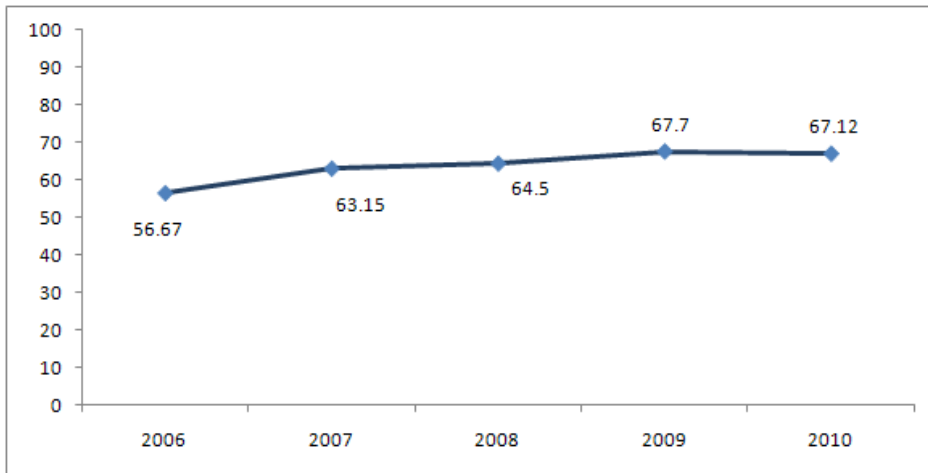
| 영역 | 만점 기준 | | | | 100점 기준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만점 | 최고 | 최저 | 평균 | 최고 | 최저 | 평균 |
| 총점 | 7,715 | 6,063.71 | 4,185.70 | 5,178.45 | 78.60 | 54.25 | 67.12 |

4) 2010. 11. 4~5일 제주시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개최된 '2010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'의 발표자료임. 우수지자체만 참석하였으므로 평가결과의 전국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.

-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평균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 67.12점으로 '06년의 56.67점, '07년의 63.15점, '08년의 64.5점 보다는 증가하였으나, '09년의 67.7점보다는 미미하나 감소하였음(그림 1 참조).
 - 기초 지자체에 대한 복지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자체 복지관계자의 복지증진 노력 증대, 복지재정 확충, 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증가하던 복지수준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음.
 - 100점 기준 평균 70점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효과성 증대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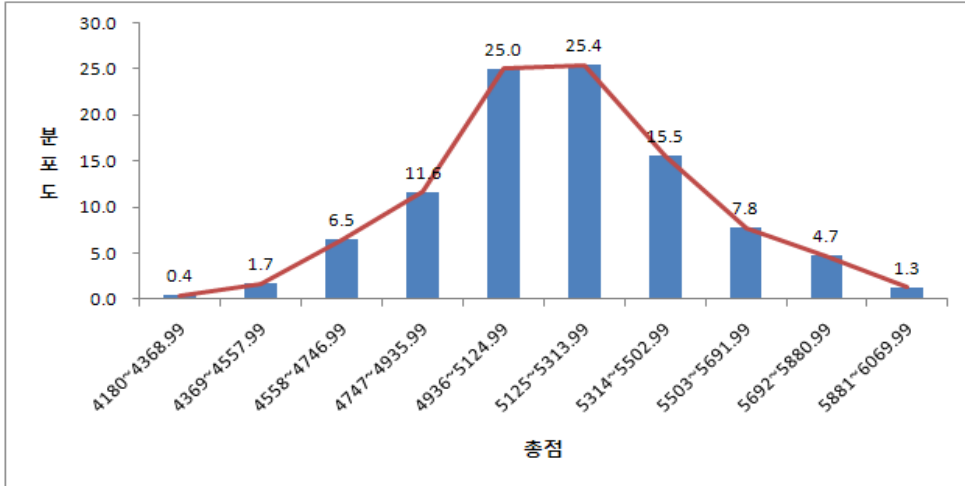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2006~2010년 복지정책 평가 총점 비교

(단위: 점)



- 232개 지자체의 평가점수의 분포는 [그림 2] 와 같이 정상분포에 매우 가까움.
 - 이는 2010년 복지정책 평가들 및 평가지표가 “적절함”을 시사함.

[그림 2]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총점 분포도



2. 종합평가 결과의 지역간 격차

-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은 100점 기준 65~68점대로 3대 지역간 격차는 미미하였음.
 - 중소도시(68.40점)가 가장 높았고, 다음은 대도시(67.06점)이었으며, 농어촌(65.96점)이 가장 낮았음.

<표 2> 2010년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

(단위: 점)

| 지역 | 만점 기준 | | | | 100점 기준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만점 | 최고 | 최저 | 평균 | 최고 | 최저 | 평균 |
| 대도시 | 7,715 | 5,880.44 | 4,185.40 | 5,173.97 | 76.22 | 54.25 | 67.06 |
| 중소도시 | 7,715 | 5,989.79 | 4,628.05 | 5,277.20 | 77.64 | 59.99 | 68.40 |
| 농어촌 | 7,715 | 6,063.71 | 4,392.83 | 5,088.69 | 78.60 | 56.94 | 65.96 |

-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수준 격차는 2006~2008년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으나, 2009년보다는 다소 격차를 보였음.

- 1,0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, 대도시 74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62.21점, 최저점수는 542.50점, 중소도시 77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76.38점, 최저점수는 599.88점, 그리고 농어촌 81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85.96점, 최저점수는 569.39점임.

〈표 3〉 2006~2010년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최고 및 최저(1000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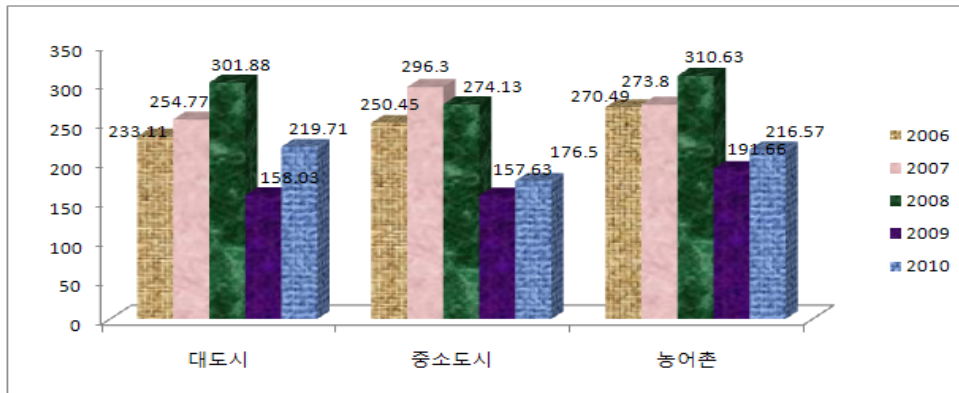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점)

| 구분 |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06년 | 최고 | 708.42 | 721.33 | 682.28 |
| | 최저 | 475.31 | 470.88 | 411.79 |
| | 차이 | 233.11 | 250.45 | 270.49 |
| 2007년 | 최고 | 757.74 | 800.50 | 738.39 |
| | 최저 | 502.97 | 504.20 | 465.31 |
| | 차이 | 254.77 | 296.30 | 273.80 |
| 2008년 | 최고 | 839.30 | 809.87 | 775.13 |
| | 최저 | 537.42 | 535.74 | 464.50 |
| | 차이 | 301.88 | 274.13 | 310.63 |
| 2009년 | 최고 | 737.29 | 759.93 | 786.79 |
| | 최저 | 579.26 | 602.30 | 595.13 |
| | 차이 | 158.03 | 157.63 | 191.66 |
| 2010년 | 최고 | 762.21 | 776.38 | 785.96 |
| | 최저 | 542.50 | 599.88 | 569.39 |
| | 차이 | 219.71 | 176.5 | 216.57 |

주: 평가총점은 2006년 720점, 2007년과 2008년 1,000점, 2009년 2,977점, 2010년 7,715점이어서 5개년도 비교를 위하여 평가총점을 1,000점으로 환산함.

- 다시 말해, 2010년도 복지수준 격차는 대도시가 가장 컸으며(1,000점 기준 219.71점), 그 다음으로 농어촌(1,000점 기준 216.57점), 그리고 가장 격차가 적은 지역은 중소도시(1,000점 기준 176.5점)로 나타남.

[그림 3] 2006~2010년 지역별 최고점-최저점 차이(1,000점 기준 환산)



3. 복지정책 평가총점의 16개 그룹간 격차

□ 16개 평가그룹의 평균 평가총점은 대도시 D그룹이 5,381.48점으로 가장 높았고, 농어촌 N그룹은 4,981.33점으로 가장 낮았음.

— 16개 그룹 중 평균 평가총점이 5,000점 미만인 경우는 2개 이었으며, 모두 농어촌에 해당되었음(N그룹과 O그룹).

□ 동일한 그룹이더라도 평가결과는 여전히 지자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유사한 여건 하에서도 노력과 관심에 따라 복지수준이 상이함을 시사함.

— 16그룹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,000점 이상인 그룹이 7개 나 되었음.

〈표 4〉 2010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

(단위: 점)

| 평가그룹 | 최고 | 최저 | 평균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대도시 | A그룹 | 5,422.69 | 4,520.69 | 5,063.54 |
| | B그룹 | 5,454.87 | 4,559.98 | 5,041.54 |
| | C그룹 | 5,462.02 | 4,185.40 | 5,093.17 |
| | D그룹 | 5,880.44 | 5,027.90 | 5,381.48 |
| | E그룹 | 5,808.09 | 4,895.42 | 5,282.75 |
| 중소도시 | F그룹 | 5,538.42 | 4,874.50 | 5,153.69 |
| | G그룹 | 5,595.36 | 4,963.38 | 5,299.30 |
| | H그룹 | 5,989.79 | 4,628.05 | 5,313.66 |
| | I그룹 | 5,771.67 | 4,722.74 | 5,311.85 |
| | J그룹 | 5,942.86 | 4,833.80 | 5,303.42 |
| 농어촌 | K그룹 | 5,706.66 | 4,796.80 | 5,315.15 |
| | L그룹 | 5,414.12 | 4,693.15 | 5,032.45 |
| | M그룹 | 6,063.71 | 4,699.75 | 5,163.23 |
| | N그룹 | 5,665.90 | 4,392.83 | 4,981.33 |
| | O그룹 | 5,359.27 | 4,468.44 | 4,986.66 |
| P그룹 | 5,586.10 | 4,539.52 | 5,070.78 | |

4.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

- 2010년 복지정책 평균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영역별로 살펴 보면, 노인복지가 83.5%로 가장 양호하였고, 다음은 의료급여 71.6%이 었음.
 -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은 55.9%로 가장 낮았으며, 그 외의 영역은 62.3~67.5%의 범주에 있었음.
- 2010년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가 장 큰 영역은 장애인복지(508.65점, 영역 총점의 57.5%)와 보육 (318.08점, 영역 총점의 56.0%)이었음.
 - 가장 격차가 작은 영역인 노인복지도 314.70점(영역 총점의 34.1%)이나 차이가 있었음.

<표 5> 2010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의 평균 및 최고·최저 점수

(단위: 점)

| 영역 | 만점 | 평균(%) | 최고 | 최저 | 최고·최저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복지총괄 | 1,711 | 1,136.75(66.4%) | 1,541.11 | 778.99 | 762.12 |
| 노인복지 | 922 | 769.88(83.5%) | 922.00 | 607.30 | 314.70 |
| 아동·청소년복지 | 568 | 372.28(65.5%) | 516.88 | 227.20 | 289.68 |
| 보육 | 568 | 383.40(67.5%) | 545.28 | 227.20 | 318.08 |
| 장애인복지 | 937 | 605.68(64.6%) | 883.45 | 374.80 | 508.65 |
| 지역사회서비스 | 826 | 550.77(66.7%) | 722.80 | 382.00 | 340.80 |
| 기초생활보장 | 885 | 494.68(55.9%) | 734.55 | 371.70 | 362.85 |
| 자활 | 688 | 428.28(62.3%) | 646.72 | 275.20 | 371.52 |
| 의료급여 | 610 | 436.73(71.6%) | 573.40 | 280.60 | 292.80 |

□ 2006~2010년 기간중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영역은 노인복지(50.0%), 아동청소년복지(27.9%), 장애인복지(26.0%) 등이었음.

— 이와는 달리 과거연도보다 평가점수가 감소한 영역은 의료급여(-6.2%)와 기초생활보장(-0.1%)이었음.

<표 6> 2006~2010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평균 점수(100점 기준 환산)

(단위: 점, %)

| 영역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증감률 ('06~'10)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총점 | 56.67 | 63.15 | 64.50 | 67.73 | 67.12 | 18.4 |
| 복지총괄 | 55.86 | 58.39 | 69.03 | 71.92 | 66.44 | 18.9 |
| 복지행정혁신 | 60.70 | - | - | - | - | - |
| 노인복지 | 55.67 | 61.49 | 60.17 | 69.98 | 83.50 | 50.0 |
| 아동·청소년복지 | 51.23 | 66.35 | 66.58 | 59.04 | 65.54 | 27.9 |
| 보육 | - | - | - | 65.75 | 67.50 | 2.7 |
| 장애인복지 | 51.32 | 55.95 | 51.31 | 65.16 | 64.64 | 26.0 |
| 지역사회서비스 | - | - | 58.88 | 65.01 | 66.68 | 13.2 |
| 기초생활보장 | 55.98 | 65.22 | 61.55 | 73.39 | 55.90 | -0.1 |
| 자활 | | 53.44 | 64.11 | 71.31 | 62.25 | 11.2 |
| 의료급여 | 76.30 | 67.44 | 71.33 | 70.50 | 71.59 | -6.2 |
| 지역복지계획 | 78.86 | - | - | - | - | - |

주: 1) 2006년 평가에는 복지행정혁신에 지역사회서비스가 포함되었고, 청소년복지와 보육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, 지역복지계획이 별도 영역으로 있었음; 2) 2007~2008년 평가에는 보육이 아동·청소년복지에 포함되었으며, 2006년의 지역복지계획은 2007년 이후에 복지총괄에 포함되었음; 3) 연도별로 각 영역의 평가점수 및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.

□ 노인복지, 아동청소년복지, 보육, 장애인복지, 지역사회서비스, 기초생활보장, 자활 등 7개 영역의 평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를 보였음(***) P<.001).

— 반면, 복지총괄과 의료급여 영역의 지역별 평가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.

□ 대도시의 평균 평가 점수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보다 높은 영역은 보육, 지역사회서비스, 기초생활보장 등이었음(의료급여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)

— 중소도시의 평균 평가 점수가 대도시 및 농어촌보다 높은 영역은 아동청소년복지, 자활 등이었음.

— 농어촌의 평균 평가 점수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높은 영역은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 등이었음(복지총괄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함).

〈표 7〉 2010년 영역 및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

(단위: 점)

| 영역 | 구분 | 최고 | 최저 | 평균 | 표준편차 | F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복지총괄 | 대도시 | 1431.98 | 905.35 | 1123.38 | 124.254 | .757 |
| | 중·소도시 | 1541.11 | 826.94 | 1134.79 | 138.761 | |
| | 농·어촌 | 1479.47 | 778.99 | 1150.83 | 153.603 | |
| 노인복지 | 대도시 | 922.00 | 607.30 | 732.47 | 71.380 | 18.955*** |
| | 중·소도시 | 922.00 | 610.60 | 785.09 | 52.951 | |
| | 농·어촌 | 922.00 | 638.80 | 789.59 | 65.029 | |
| 아동·청소년복지 | 대도시 | 494.16 | 227.20 | 329.06 | 78.981 | 27.787*** |
| | 중·소도시 | 516.88 | 255.60 | 413.90 | 48.402 | |
| | 농·어촌 | 516.88 | 227.20 | 372.22 | 77.938 | |
| 보육 | 대도시 | 528.24 | 278.32 | 406.66 | 50.881 | 9.107*** |
| | 중·소도시 | 545.28 | 255.60 | 383.95 | 75.972 | |
| | 농·어촌 | 499.84 | 227.20 | 361.63 | 66.960 | |
| 장애인복지 | 대도시 | 858.46 | 374.80 | 589.76 | 123.766 | 1.469*** |
| | 중·소도시 | 883.45 | 374.80 | 602.69 | 128.443 | |
| | 농·어촌 | 883.45 | 374.80 | 623.06 | 114.616 | |
| 지역사회서비스 | 대도시 | 722.80 | 433.60 | 591.31 | 86.071 | 54.150*** |
| | 중·소도시 | 722.80 | 433.60 | 583.29 | 74.504 | |
| | 농·어촌 | 616.76 | 382.00 | 482.82 | 56.728 | |
| 기초생활보장 | 대도시 | 734.55 | 389.40 | 523.35 | 70.395 | 9.502*** |
| | 중·소도시 | 708.00 | 371.70 | 488.24 | 73.154 | |
| | 농·어촌 | 672.60 | 371.70 | 474.62 | 70.307 | |
| 자활 | 대도시 | 626.08 | 275.20 | 433.35 | 68.758 | 7.959*** |
| | 중·소도시 | 646.72 | 275.20 | 451.67 | 83.474 | |
| | 농·어촌 | 605.44 | 275.20 | 401.42 | 86.557 | |
| 의료급여 | 대도시 | 573.40 | 347.70 | 444.64 | 53.328 | 1.303 |
| | 중·소도시 | 549.00 | 323.30 | 433.58 | 47.279 | |
| | 농·어촌 | 524.60 | 280.60 | 432.50 | 52.965 | |

주: ***P<.001

□ 평가영역별 16개 평가그룹간의 평균 평가 점수는 큰 차이를 보여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.

- 복지총괄영역은 K그룹이 1231.94점으로 가장 높았고, F그룹이 1045.81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노인복지영역은 K그룹이 837.88점으로 가장 높았고, B그룹이 694.82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아동청소년복지영역은 G그룹이 422.59점으로 가장 높았고, E그룹

이 308.99점으로 가장 낮았음.

- 보육영역은 D그룹이 429.79점으로 가장 높았고, F그룹이 335.50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장애인복지영역은 I그룹이 656.57점으로 가장 높았고, B그룹이 536.11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사회서비스영역은 F그룹이 660.78점으로 가장 높았고, O그룹이 448.85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기초생활보장영역은 D그룹이 551.65점으로 가장 높았고, J그룹이 447.48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자활영역은 F그룹이 478.39점으로 가장 높았고, N그룹이 355.79점으로 가장 낮았음.
- 의료급여영역은 D그룹이 460.35점으로 가장 높았고, L그룹이 412.45점으로 가장 낮았음.

〈표 8〉 2010년 평가그룹별 영역의 복지정책 평균 평가 점수

(단위: 점)

| 지역 | 평가그룹 | 복지 총괄 | 노인 복지 | 아동· 청소년복지 | 보육 | 장애인 복지 | 지역사회 서비스 | 기초 생활보장 | 자활 | 의료 급여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전국 | | 1136.75 | 769.88 | 372.28 | 383.40 | 605.68 | 550.77 | 494.68 | 428.28 | 436.73 |
| 대도시 | A그룹 | 1055.32 | 698.74 | 328.63 | 406.93 | 588.78 | 594.73 | 522.15 | 429.51 | 438.76 |
| | B그룹 | 1105.96 | 694.82 | 348.37 | 388.13 | 536.11 | 565.35 | 526.87 | 444.45 | 431.47 |
| | C그룹 | 1092.43 | 737.52 | 321.11 | 401.77 | 589.21 | 550.24 | 521.56 | 445.82 | 433.51 |
| | D그룹 | 1155.66 | 773.80 | 338.15 | 429.79 | 610.13 | 641.82 | 551.65 | 420.14 | 460.35 |
| | E그룹 | 1202.99 | 755.22 | 308.99 | 406.69 | 624.52 | 604.64 | 494.42 | 426.56 | 458.72 |
| 중소 도시 | F그룹 | 1045.81 | 772.44 | 409.34 | 335.50 | 493.31 | 660.78 | 515.66 | 478.39 | 442.45 |
| | G그룹 | 1099.99 | 776.64 | 422.59 | 379.80 | 569.46 | 603.59 | 533.95 | 461.88 | 451.40 |
| | H그룹 | 1134.22 | 798.14 | 405.17 | 399.87 | 640.43 | 565.03 | 492.65 | 460.50 | 417.65 |
| | I그룹 | 1168.75 | 783.34 | 417.84 | 407.19 | 656.57 | 561.33 | 456.33 | 423.98 | 436.53 |
| | J그룹 | 1217.40 | 794.37 | 414.29 | 395.12 | 647.12 | 530.69 | 447.48 | 436.45 | 420.52 |
| 농어촌 | K그룹 | 1231.94 | 837.88 | 384.49 | 377.06 | 620.55 | 531.22 | 453.39 | 423.91 | 454.68 |
| | L그룹 | 1072.08 | 794.57 | 397.16 | 352.60 | 598.17 | 505.64 | 490.15 | 409.62 | 412.45 |
| | M그룹 | 1215.46 | 780.40 | 360.02 | 381.87 | 641.87 | 489.59 | 476.54 | 397.98 | 419.49 |
| | N그룹 | 1126.59 | 770.76 | 376.50 | 365.14 | 611.90 | 470.78 | 463.36 | 355.79 | 440.51 |
| | O그룹 | 1091.97 | 781.19 | 345.26 | 346.48 | 655.78 | 448.85 | 480.43 | 393.14 | 443.56 |
| | P그룹 | 1171.74 | 775.90 | 371.63 | 348.51 | 609.47 | 456.42 | 483.59 | 430.00 | 423.51 |

5. 평가총점과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

□ 단순상관관계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임.

— 상관계수 r 값은 0~1 사이의 값을 가지며, 값이 높을수록 상관성이 높아지게 됨.

※ 상관계수가 0.5 이상이 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.

□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을수록, 재정이 좋을수록 복지사업이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다고 추측하여 ‘인구수’와 ‘재정력’은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여 왔음.

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가총점과 인구 및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,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나타났다.

□ 전체적으로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와 평가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— 다만,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는 양(+)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(.642)를 보였음.

<표 9> 2010년 인구수, 재정자립도,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

| 구분 | 총점 | 인구수 | 재정자립도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총점 | 1 | - | - |
| 인구수 | 0.59 | 1 | - |
| 재정자립도 | -.038 | .642** | 1 |

주: **P<.01

□ 전술한 바와 같이, 2010년도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었는데, 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의 상관관계 방향이 상이하여 전체 상관관계수 값을 상쇄시켰기 때문임.

— 대도시, 중소도시는 음(-)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, 농어촌은 양(+)의 상관관계를 보였음.

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, 평가총점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.

—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평가총점이 높게 나타났다.

<표 10> 2010년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

| 구분 | 재정자립도 | |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전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 평가결과 총점 | -.038 | -.345** | -.313** | .271* |

주: *P<.05, **P<.01

□ 2010년도 인구수와 평가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.

— 이는 3대 지역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.

<표 11> 2010년 인구수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

| 구분 | 인구수 | | | |
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| 전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 평가결과 총점 | .059 | -.214 | -.055 | .168 |

농어촌지역 평가그룹(2010년)

| 그룹명 | 지자체 |
|-----|--|
| 1그룹 | 충북 청원군, 충남 당진군, 경기 여주군, 경북 칠곡군, 경기 양평군, 충북 음성군, 충남 연기군, 충남 홍성군, 전북 완주군, 충북 진천군, 전남 화순군, 경남 함안군, 충남 예산군 |
| 2그룹 | 충남 태안군, 경기 가평군, 강원 홍천군, 충남 부여군, 충남 금산군, 경남 창녕군, 경북 울진군, 경기 연천군, 전남 영암군, 전남 영광군, 충북 영동군, 경남 고성군, 경남 하동군 |
| 3그룹 | 전남 해남군, 경남 거창군, 전북 부안군, 강원 평창군, 전남 무안군, 충북 옥천군, 전남 담양군, 강원 정선군, 경남 합천군, 경북 성주군, 충북 증평군, 충남 서천군, 경북 고령군 |
| 4그룹 | 충북 단양군, 전남 고흥군, 강원 철원군, 경북 예천군, 전북 고창군, 경북 의성군, 강원 영월군, 전남 함평군, 전남 장성군, 경북 청도군, 경북 군위군, 강원 횡성군, 경남 의령군, 경남 산청군 |
| 5그룹 | 강원 양구군, 충북 괴산군, 경남 남해군, 강원 양양군, 경북 영덕군, 전남 완도군, 경남 함양군, 강원 고성군, 전남 보성군, 충남 청양군, 경북 청송군, 전남 곡성군, 강원 화천군, 전남 장흥군 |
| 6그룹 | 충북 보은군, 경북 울릉군, 전남 신안군, 전남 강진군, 전남 진도군, 강원 인제군, 전북 진안군, 경북 봉화군, 전북 무주군, 전북 장수군, 전북 임실군, 전북 순창군, 전남 구례군, 경북 영양군 |